

청년생활

3

1964



《3.1 운동》

《불을 지르라. 나의 가슴에서 끓는 피의 방울방울이 불꽃이 되여 왜놈의섬나라를 태워 버리리라. 그것을 모조리 태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물어 뜯고 물어 삼키기라도 하리라.》

—3. 1운동 당시 평안 북도 철산의 안 정명이가 자기의 불굴의 결의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74)



1964. 3

차 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김 일 성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 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 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 동맹의 강화가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 문제는 과거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 하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 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 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로동 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워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농촌 문제는 혁명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하게 제기된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 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는 개인 농민 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 농촌 경리 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농촌 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후에 있어서는 농촌 문제가 그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장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이 과업은 이미 제기되였다. 우리의 농촌 사업은 응당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사업에서 반드시 세 개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세째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

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1.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만일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실현되었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 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도시 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 의식이 뒤떨어져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 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 경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세 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여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계급 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 분자들과 전복된 착취 계급 잔여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에서 표현된다.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수호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 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 준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 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 근성이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되며 사상 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 날 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장기간에 걸치는 인내성 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

사상 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없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 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사상도 개조하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강화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

2.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의 발생과 공고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와 방조 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 갈 수 있다.

로동자와 농민은 동일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 같이 사회주의적 근로자이다.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 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개 형태이며 다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 진다. 개인 농민 경리 때에는 주로 매개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후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 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 지고 돌보아야 한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 나아가고 있다.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여야만 농촌 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 지출은 전 사회의 리익을 위한 것이며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 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농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농촌 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촌을 도와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만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심중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장악하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 주며 락후하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접근하여 가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힘을 증대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축소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계속 발양시킬 수 있으며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업 자체와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 관계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 차이이다.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동시에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락후성과 관련되여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모든 차이를 없앨 수 있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도 없앨 수 있다.

경제 관리 수준과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의 지도 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려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정확한 호상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반적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 관리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업 협동 경리를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 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 장비가 약할 뿐 아니라 기술 지도에서는 더욱 뒤떨어져 있다. 개인 농민 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도 계획화 되고 조직화 되였으나 이 면에서도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기술 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 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바로 이것이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이며 경제 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기본 방향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업 협동 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 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고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문화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 생산의 장성과 협동 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 인민적 소유(공업)와 협동적 소유(농촌 경리)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농민의 사회 경제적 처지,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호상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 문제이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 경리 제도는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 발전 정도에 적합한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 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 경리 제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 하에서 농업 협동 경리 제도가 고정 불변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적 소유도 발전하며 변화

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 농민들의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에 따라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채종 농장과 종자 처리장, 농사 시험장, 종축장과 수의 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 경리의 농업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 협동 경리 발전에서의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아가야만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적 소유를 공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전 인민적 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만일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인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를 농촌 경리에 잘 보급할 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저하시키고 로농 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와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도 안 된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고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에 큰 차이가 남아 있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로동 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개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적 소유를 더욱더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면서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 과업

우리 당은 농촌 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 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우리는 농업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빠른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우리의 협동 농장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고 그들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농촌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농촌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여 준다.

오늘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당의 농촌 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더한층 촉진하여야 한다.

1. 농촌 기술 혁명

농촌 기술 혁명은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 과학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 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 기술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거대한 힘을 돌렸다.

수리화는 농촌 기술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 지리적 조건, 특히 기후 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 토대를 축성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다. 수리화의 실시는 수재와 한재를 극복하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담보로 된다. 논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한재와 수재가 심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 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공고한 농업 생산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의 앞으로의 과업은 어떠한 가물이 드나 홍수가 져도 항상 풍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확대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알곡 총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2~3년 내에 논 면적을 70만 정보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의 관개

공사들을 빨리 완공하며 새로운 관개 공사를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관개 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천 년 동안 락후한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 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력사적 임무이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켜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급속히 높이는 동시에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휴식할 뿐 아니라 학습과 문화 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밭갈이로부터 수확과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 작업을 기계화하며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밭갈이와 김매기, 수송 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가까운 년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뜨락또르 대수를 7만~8만 대(15 마력 환산으로), 자동차는 3만~3만 5,000 대에 이르게 하며 기타 각종 농기계들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서나 작물 구성과 경종 체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광범히 창안 제작하여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정리하고 경종 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기화는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 갔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 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전기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2~3년 내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다 전기가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전기 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탈곡,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류동하지 않고 진행되는 작업들은 모두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농가들에서 라지오 또는 유선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며 각종 전기 용품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 경리에서의 화학의 적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1963년에 농경지 정보 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300 키로 그람에 달하였으며 그 품종 구성은 더욱 개선되였다. 농촌에 대한 농약의 공급량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적합한 다종 다양한 화학 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각종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농경지 정보 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 키로 그람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톤 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 시비 체계를 확립하여 화학 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구성 부분이다. 기계화, 전기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 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줄 수 없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 과학의 성과와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며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경리의 집약화—이것은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집약 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 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집약적 영농 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 체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광범히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 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량하며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야 한다.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 생산이다. 알곡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 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알곡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알곡 생산에서의 당면 과업은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 총 수확고를 훨씬 더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는 것이다.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 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공고한 식량, 원료 기지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 주고 농촌에서도 기본적으로 8 시간 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2. 농촌 문화 혁명

농촌 문화 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농촌 문화 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실현할 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도 젊은 세대들은 다 7 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농촌에 기술 학교가 광범히 설치되여 수 많은 농촌 청소년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 교육을 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9~10년제 기술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성인 교육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들이 초급 중학교 이상의 일반 지식과 영농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더욱더 많은 농촌 기술 간부를 요구한다.

앞으로 수년 내에 매개 협동 농장에 5 명 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 명의 기수 또는 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 고등 기술 학교들을 통하여 농촌 청년들 속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내야 한다. 농촌 기술 간부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 보건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 생활 조건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에서 각종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이미 퇴치되였다. 모든 농촌 리에서 공동 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수 많은 문화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건설되였다. 각종 출판물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 문예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에 침체하고 불결하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농촌 진료소들을 확장하고 완비하며 농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농촌 녀성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 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 주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로력 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녀성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양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주택 건설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전체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 주택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활 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공급하며 모든 농촌 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 속에서 군중 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생활 관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며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점차 기사, 기수의 수준에 끌어 올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 조건, 문화 후생 시설 기타 모든 문화 생활 조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더 축소시키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3.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각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 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수호하며 더욱 공고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농민들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 도덕의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 있다.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다.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농촌에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 사상 혁명이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여기에 농촌에서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농촌 사업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 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견결한 혁명 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고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리기주의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 온 뿌리 깊은 사상이다. 농민들 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 계급의 사상으로서 증오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 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는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씨족 관념과 문벌주의를 반대하며 그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렬한 지향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

심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은 반드시 당 정책 교양 및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험은 이 방법이 군중 교양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긍정적 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 주고 꾸준하게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은 주로 그들의 실천 활동, 집단 로동을 통하여,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켜 농민들의 집단적 생산 혁신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문화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할 것이다.

4. 농촌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도시 및 로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 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토지 개혁을 실시할 때부터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업 협동화를 실시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에 대한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당과 로동 계급의 령도,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의 협동 농장들은 당의 정확한 지도와 국가의 막대한 물질 기술적 방조와 전체 인민의 지원에 의하여 그리고 이에 무한히 고무된 협동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 주도록 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5 년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중 15.8%가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 돌려졌다. 국가는 또한 협동 농장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은 상환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건설 투자와 재정적 방조에 의하여 방대한 관개 공사들과 치산 치수 사업이 진행되고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촉진되였으며 농촌 문화 건설이 광범히 실시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해마다 더 많은 농기계, 화학 비료, 농약, 건설 재료와 각종 소비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였다. 우리는 농촌에 방대한 로력적 방조도 주었다.

국가는 농업 현물세를 감면하며 공예 작물 수매 가격을 높이며 농기계 작업료, 관개 사용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낮추며 농촌 어린이들에게 의복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협동 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오늘 농촌 경리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과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리익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이미 축성된 조건 하에서 농촌에 능히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게 되였으며 또 응당 주어야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 투자를 증가시키며 물질 기술적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공업 부문들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화학 비료, 건설 재료 등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의 부담으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파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은 고도로 집약화되여 있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장시일을 요한다. 우리의 농촌 로력에서는 아직도 로인들과 녀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청장년 로력을 더욱 보충하여 주며 농촌에 대한 사회적 로력 방조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고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민들에게 각종 공업 상품을 다량으로 공급하며 농촌에서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농촌에 로동자, 제대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고 혁명가 유가족, 피살자 가족들을 고착시키며 핵심 대렬을 계속 확대하여 농촌 진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당 조직,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과 그 일'군들이 농촌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농촌에 더 큰 방조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농촌을 더 힘있게 도와 줌으로써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농촌을 다 같이 튼튼히 꾸리고 더욱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 나아감으로써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며 장차로는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모든 생산 조건과 생활 조건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5.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은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는 첫날부터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지도 체계와 방법을 개편하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 방법, 당의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보급은 우리의 모든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협동화된 농촌의 새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지도 사업을 개편하게 하였다. 특히 당은 청산리 방법을 침투시키면서 당시 협동 농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기능을 수행하던 군 인민 위원회의 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 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농장의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고 침

2호 53 페지 좌단 1~2 행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제는 더는 어느 한 당이……》를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느한……》으로 고침

도와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 현실의 급속한 변화는 농촌 경리에 대한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요구하게 되였다. 협동 농장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는 급격히 증대되였다.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농촌 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훨씬 더 복잡하여 졌으며 농촌 경리 앞에는 더욱더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행정 기관으로서의 군 인민 위원회는 이미 농촌 경리를 원만히 지도할 수 없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62년 초에 새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의 창설은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게 농업 지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조치였으며 농촌 경리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결합시킨 창조적인 대책이였다.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 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된 결과 매개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이 개선되였을 뿐 아니라 군내 협동 농장들의 련계도 강화되였다.

경영 위원회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련계를 강화한다. 경영 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였다.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강화하고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의 과업은 경영 위원회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를 능숙하게 지도하며 협동 농장들에 더 효과적인 방조를 주는 데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경영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낡은 행정식 사업 방법을 완전히 퇴치하고 경영 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게 협동 농장들을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 시설의 리용, 기술 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생산물의 분배, 재정 관리 등 협동 농장들의 모든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하여 주며 구체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기업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이다. 농업 생산도 공업 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 공정이다. 농촌 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 가며 생산 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 지고 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 수 없다. 경영 위원회는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기술자들을 옳게 동원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농촌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생산이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주인은 사람이다. 농업에서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수 없다. 농민들과 사업하지 않고는 농촌 현실을 충분히 료해할 수 없으며 농촌 경리를 옳게 지도할 수 없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에 립각하여 항상 현지에 나가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현실을 깊이 료해하는 기초 우에서 협동 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업 생산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든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자재들은 경영 위원회의 직접적 관할 하에 있거나 또는 경영 위원회를 통하여 농촌에 들어 간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가 효과 있게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경영 위원회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

경영 위원회는 군내 농촌 경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관개 시설, 농기계, 화학 비료 등 설비와 자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는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국가 기업소들과 국가의 기술 수단 및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옳게 관리하여 그것들이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며 협동 농장들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경영 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하고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수익성이 높은 사회주의 경리로 만들어야 한다.

군 경영 위원회와 함께 도 농촌 경리 위원회 및 중앙 농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과 국영 농목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방조하면서 도내 농촌 경리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군에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영농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작물 배치, 종자 선정, 시비 체계의 수립 등 기술적 지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앙 농업 위원회는 농촌 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농촌 경리의 전망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앙 농업 위원회는 농업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과 간부 양성 사업, 대규모의 자연 개조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이 사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지도 체계는 농업의 경영 관리를 선진적 공업 관리의 수준에 더욱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농촌 경리 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 문제들의 해결을 옳게 배합시키는 우월한 체계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 지도 기관들,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될 것이다.

3.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 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 구성의 복잡성, 농촌 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등과 관련되여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 있다.

농촌 사업의 대상은 전국 각지에 분산되여 있는 농촌 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분산되여 일하며 살고 있는 농민들이다. 농촌 경리가 협동화된 결과 농촌의 분산성이 현저히 퇴치되였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 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이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하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 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로 되고 있으며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 지도 단위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들어 간다. 군 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 가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은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되고 있다. 지방 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 소재지와 농촌 건설도 군 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 들이며 군을 거쳐서 로동 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련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배운다.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거대한 역할은 곧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의 위치와 역할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이 방향에서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 왔다.

당은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군 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군에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문화 후생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1962년에 소집되였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는 창성군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 앞에 나선 과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군 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는 데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군내 지방 공업의 역할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매개 시, 군에 직물 또는 편직물 공장, 장유 공장, 가구 공장 등 평균 1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여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 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군들에 건설된 지방 산업 공장들은 주로 지방 원료를 가공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여러 가지 소비 상품을 생산하여 군내의 농촌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각종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 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 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모든 군들에서는 이미 축성한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방의 원료 원천을 광범히 동원하여 가공하며 특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 산물을 가공하는 데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 산업 공장들은 군내의 농촌 경리와 기타 부문들에 대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기지로 되여야 하며 높은 생산 문화와 선진적 기업 관리의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과 기타 지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지방 공업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도 지방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거의 모든 군들에 한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으로 되며 또한 공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지방에 있는 중앙 공업 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협동 농장들은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채소, 축산물 등 식료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군은 군내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 간에 밀접한 련계를 지어 주며 호상 방조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군

사회주의 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 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 또한 이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 주민들과 공업의 식량 및 원료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된다.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공급되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군이 공급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더 밀접하여 지며 따라서 이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제고되여야 한다.

농촌 경리가 발전하고 농민들의 수입이 장성함에 따라 농민들은 질 좋고 다양한 공업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한다.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하고 농촌 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상품 배정을 잘 하여 농민들에게 공업 상품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 상업 기관들은 공업 기업소들이 농촌의 수요에 적합하게 제품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업 생산이 장성하고 농촌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상품 생산물이 급속히 증가된다. 군은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하고 수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 생산물을 제때에 사 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 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산 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농촌 상업은 농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군 상업 기관과 수매 기관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립장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과 함께 농민들을 위한 생활 봉사를 개선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매개 농촌 리에 상점은 물론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의복 및 가구 수리소, 합숙 등 각종 편의 봉사 시설들을 완비하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여 농민들의 모든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농촌 리들을 농업의 튼튼한 생산 세포로 만들 뿐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급 세포로, 훌륭한 봉사 세포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군은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군 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군은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 문화 위생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농촌의 당 간부들과 관리 기술 간부들도 주로는 군 교육 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된다. 농촌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은 군에 소속된 농촌 건설대에 의하여 진행된다.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농촌 학교들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여 농촌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은 군내의 농촌 청소년들에게 다 기술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군은 자체의 고등 기술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하여 농촌 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군은 군 병원과 농촌 진료소들을 잘 꾸리고 농촌 보건망을 확장하여 농촌에서의 보건 위생 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전반적 문화 사업에 대한 군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는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 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기지로 된다. 군 소재지를 아름답게, 아담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려 농촌이 이를 따라 오도록 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는 농촌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으로 되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의 표본으로 되여야 한다.

군은 농촌 건설대의 력량을 동원하여 군 소재지와 군내 농촌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 건설대는 군내 농촌의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 사업을 책임적으로 담당 수행하여야 한다.

군이 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때 군내 농촌 문화 혁명은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4. 농촌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

군당 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이며 군 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 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농촌 사업에 대한 지도는 군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군당 위원회의 주되는 사업 대상은 농촌이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의 농촌 당 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군당 위원회가 지도하는 다른 부문들의 사업도 다 농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농촌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 위원회의 농촌 사업 지도를 계속 개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첫째로, 군당 위원회는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서 키잡이의 역

할을 잘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 건설, 농촌 문화 사업 등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군 인민 위원회 기타 군내 행정 경제 기관들이 직접 조직하며 집행한다. 군당 위원회는 경제 문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지도하며 통제한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행정 경제 기관들이 당 정책에 립각하여 농촌에서의 경제 문화 사업을 옳게 수행하게끔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당 위원회는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 집행 정형을 수시로 검열하고 통제하며 잘못되는 것은 제때에 고쳐 주어야 한다.

농촌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해당 시기의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농촌 사업은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군당 위원회는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경제 문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군당 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과 정치 사상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 당 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 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 당원들과 사업하며 농민 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 농촌 당 세포들과 리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방조하여 농촌의 모든 당 조직들이 자기의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간부 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도와 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농촌 간부들이 당 정책에 립각하여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전체 농촌 당원들이 농민 군중 속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전체 농민들이 당의 농촌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당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의 모든 당 조직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며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농민들이 다 움직이며 다 자각적으로 일하며 다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 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의 직접적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군당은 농촌 당 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농촌 당원들과 천리마 기수들, 열성 농민들을 발동시켜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군당 위원회들이 농촌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 당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군내의 전반적 농촌 사업에서 참모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4.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였다.

전쟁의 폐허 우에서, 농기계도 없고 로력과 축력도 부족한 비상히 어려운 형편에서 조직된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이 오늘에 와서는 생산을 계속 확대하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자라 났다. 전쟁으로 인하여 주택과 가재 도구를 거의 다 잃어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부족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 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의 과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였으나 원래 우리 농장들이 너무나 빈약한 토대에서 조직되였기 때문에 아직도 부유한 농장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였으나 원래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유족하게 잘 살지는 못 하고 있다. 해방 후 특히 농업 협동화가 실현된 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현저히 축소되였으나 과거에 우리 농촌이 너무나 락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만 못 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 농장들을 부유한 농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 축소시키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여기에 접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업 생산을 훨씬 더 장성시키는 동시에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계통적으로 덜어 주어야 한다.

오늘 공업의 위력이 장성하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며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둘째로, 농촌 기본 건설에서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하던 것도 앞으로는 국가 자금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째로,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는 것 등이다.

1.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현물세제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토지 개혁의 실시에 뒤'이어 도입되였다.

해방 전에 우리 농민들은 소작료, 강제 공출 기타 가렴 잡세로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였다.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단일한 현물세제가 도입됨으로써 농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략탈에서 해방되였으며 다만 수확고의 25%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변혁이였다.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적 국영 공업이 발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되여 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 부담을 점차적으로 덜어 주었다. 수확고의 25%이던 현물세률을 전후에 와서는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낮추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며 일부 농장들에 대하여서는 현물세의 납부를 완전히 면제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3,700여 개의 협동 농장들 중 1963년 말까지 현물세의 납부를 완전히 면제 받은 협동 농장 수는 1,331 개에 달한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현물세제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제는 이 결정을 집행할 때가 되였다.

우리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 년간에 걸쳐 농업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물세를 이미 면제 받은 협동 농장들을 제외하고 2,400여 개의 농장들이 현물세를 바치고 있다. 우리는 금년에 이 가운데서 800여 개의 협동 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하여 주고 1965년에 또 약 800 개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며 마지막 해인 1966년에 가서는 나머지 농장들까지 다 면제하여 주어 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물세의 면제는 매개 협동 농장들의 경제 형편을 충분히 참작하여 뒤떨어진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첫해에는 경제 토대가 비교적 약한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다음 해에는 중간 수준의 농장들을 면제하여 주고 비교적 부유한 농장들은 마지막 해에 면제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는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대책으로 될뿐 아니라 우리의 농민들을 온갖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2. 국가 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방대한 기본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기본 건설에서 대규모의 대상들은 모두 국가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고 중소 규모의 대상들은 주로 협동 농장들의 자체 투자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다. 지난 5 년 간에 농촌 기본 건설 총 투자액 중 국가 투자가 60% 이상, 협동 농장들의 자체 투자는 약 40%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종전에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하던 기본 건설도 금년부터는 국가 자금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구, 중소 농기계, 역축 등은 앞으로도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중소 관개 공사, 하천 정리, 양수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의 건설과 전가 가설 등 기본 건설은 다 국가 자금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국가가 방대한 추가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는 협동 농장들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덜어 줌으로써 농장들로 하여금 영농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면서도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몫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 기본 건설 투자액을 장성시키고 농촌 기본 건설을 더 계획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급속히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수천년 동안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다.

해방 후 농촌 주택 문제는 농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혹심한 전쟁 피해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의 주택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수 많은 새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농촌 건설

대가 조직된 후 농촌 주택 건설은 더욱 광범히 전개되였다. 농촌에서의 주택 사정은 이미 결정적으로 개선되였다.

농촌 주택 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부담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문화 주택을 지어 주어야 한다. 모든 농민들에게 다 훌륭한 문화 주택이 차례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농촌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국가가 부담할 뿐 아니라 이미 농촌 건설대가 지어 준 문화 주택들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전체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만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이와 같은 인민적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대책 외에도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방대한 국가적 대책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로동 계급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으며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로동자들은 나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촌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 운수,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민을 도와 주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로동 계급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농민들을 백방으로 방조하여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도시 주민들과 공업을 위하여 더욱 튼튼한 식량, 원료 기지가 축성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우리의 농민들은 농촌 경리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하여 증산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자들과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 축산물, 채소, 과실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이 장성하면 할수록 공업 발전이 촉진되고 나라의 경제 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며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훌륭히,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

* *

농촌 문제를 계속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과거에 락후하고 빈곤하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우리의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더 힘 있게 성원하며 조국 통일 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농촌 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에게 세련된 맑스-레닌주의 당과 로동 계급의 강력한 주권이 있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와 위력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나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로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같이 농촌 전선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공화국 2중 영웅

리 명석 동무에게서 배우자

배 순 재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전투 승리를 보장하고 장렬하게 희생된 줄로만 알았던 리 명석 영웅이 그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들 곁에 살아 있으며 천리마 기수로써 활동하고 있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 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리 명석 동무에 대한 보도가 나간지 일 주일 안팎으로 그에게는 수천 통에 달하는 편지가 날아 왔다. 함남도 홍상군 송정 협동 농장 천리마 축산 작업반 민청원들로부터 보내 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

《…우리는 동지의 고결한 품성에 무한히 감동되고 있습니다. 조선 청년의 대오에 동지와 같은 분이 있음을 우리는 크나큰 자랑으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당에 대한 충직성, 혁명 위업에 끝까지 참가하려는 불타는 열의, 그리고 자기의 위훈에 대한 겸손성, 그 모든 품성은 실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리 명석 2중 영웅은 어떤 청년인가?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의 모든 생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당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으며 미래도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난 날 천대 받고 압박 받던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어엿한 주인이 되여 보람차고 희망찬 새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그의 령도 밑에 영원토록 번영하는 조국이 있기 때문이다.

리 명석 동무는 해방 후 비로소 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다.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글을 배웠으며 영예로운 로동당원으로 자라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인 관점을 소유하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이였으며 그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불굴의 혁명 정신이였다.

그는 바로 이런 혁명 정신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였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자기 희생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전쟁이 개시되자 그는 첫 전투부터 참가하여 락동강 계선까지 항상 전우들의 앞장에서 적들을 족쳤다. 락동강을 도하한 아군 부대가 일시 위급한 정황에 놓이게 되였을 때 그는 자진 적 땅크 파괴조에 망라되여 조장으로 적진 깊이 들어 가 혼자서 적 땅크를 단꺼번에 세 대나 까부시는 대담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적들의 악명 높은 소위 《하기 및 추기 공세》를 좌절시키는 전투의 하나였던 동부 전선의 무명 고지 습격 전투 때에도 그는 적 중기 화점을 까부시는 습격조에 탄원하여 불을 토하는 화구를 육탄으로 막아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는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그의 무한한 충실성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 그는 언제 어데서나 항상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였으며 그를 위함이라면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였다.

그는 아무리 곤난한 정황에서도 우선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1차 진공 시기 서울 해방 전투가 치렬하던 때였다. 놈들이 자칭 《정예》 부대라고 떠벌이던 《백골》 부대는 인민 군대한테 본때 있게 얻어 맞고 패주하다가 그 더러운 목숨을 살려 보려고 무고한 인민을 끌어 내여 앞세우고 그 틈에 끼웠다. 이것을 눈치 챈 리 명석 분대장(당시)은 그리로 쏜살 같이 내달아 가며 소리 높이 웨쳤다. 《인민 군대는 인



민을 해치지 않소, 빨리 떨어져 나오시오!》 이 말을 들은 인민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백골》 부대만 남게 되였다. 그러자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명석 동무는 전우들과 함께 놈들을 사정 없이 들이치면서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서울에 입성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마음은 그의 제대 후 생활에서도 다름이 없었다. 비록 영예 군인의 몸이였지만 그는 자진하여 이동 영사기를 맡아 가지고 백여 리를 넘는 산간 막바지 부락까지도 찾아 들어 가 인민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며 그들을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시켰다. 그는 이동 영화를 가지고 인민들이 로동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할 뿐더러 짬짬이 그들의 일'손을 도와 주는 것을 하나의 일과로 삼았다. 밤 늦도록 영화를 돌리고는 또 새벽부터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고장 난 고성기며 시계, 재봉기들을 고쳐 주었다. 어떤 부락에 가서는 선풍기나 탈곡기도 고쳐 주었다. 지어 그는 리발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로인들과 어린애들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그의 불 같은 마음은 국가 및 사회 재산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도 력력히 찾아 볼 수 있다.

련대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명사수이자 분대장이였던 그는 항상 대원들에게 인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탄알을 헛되이 쓰지 말라고 거듭 타 일렀다. 그는 여하한 역경에서도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무기, 조국과 인민에게서 받은 무기를 눈'동자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

제대 후 이동 영사 기술원으로 일하는 그의 '무기는 이 번에는 영사기였다. 매일과 같이 옮겨 싣고 다녀야 하는 이동 영사기여서 자칫하면 고장 나기 일수였다. 운수 기재가 험한 길로 갈 때면 그는 영사기를 무릎 우에 부둥켜 안았으며 장마철에 개울을 건늘 때에는 상처의 아픔을 무릅쓰고 일일이 메여 날랐다. 영사기를 돌리기 전이나 돌린 후에는 먼지 한 점 낄세라 알뜰알뜰 닦대질한다. 그러기에 그가 이동 영사기를 맡아 가지고 다닌 지난 5년 동안 고장 때문에 수리소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는 비단 자기가 다루는 물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라와 인민의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살림'군이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어느날이였다. 자기가 일하는 휴양소 앞바다에 떠 있는 18척의 뽀트가 집채 같이 밀려 드는 파도에 삼켜 들어 갈려고 하는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 현장에 남 먼저 달려 나온 명석 동무는 물참봉이 되여 오한에 떨면서도 그것들을 다 건져서 비끄러 매고야 돌아 왔다.

그는 늘 마치를 차고 다니면서 찌그러진 의자들을 고쳐 놓았으며 현악기들의 줄이 끊어지면 애써 이어 놓군 하였다. 그는 휴양생들이 즐겨 치는 탁구알이 깨여지면 그것을 버릴세라 일일이 재생시키군 했다.

명석 동무는 나라와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함께 **뜨거운 동지애**로 충만되여 있었다.

그는 항일 빨찌산들처럼 혁명 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특히 어린 민청원들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다.

평화적 건설 시기 그가 군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그의 중대에 《키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신입 대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만저만 애꾼이 아니였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한동안 중대 지휘관들은 은근히 골머리를 앓게 되였다. 이것을 알게 된 명석 동무는 자진해서 그를 자기 분대에 받아 들여 침식을 같이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끝내 고쳐 놓고야 말았다고 한다. 그 후 이 《키다리》 대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대장 대렬 감사를 받았으며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되자 전우들과 함께 적을 용감히 무찌르고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가렬처절한 전투의 환경일수록 명석 동무는 혁명 동지들을 극진히 돌보았다. 그의 중대가 숙영하고 있는 동부 전선의 산마루와 골짜기들에 련일 폭우가 쏟아졌다. 적과의 치렬한 격전의 여가마다에 단잠에 들군 하는 대원들의 초막 속에 비'바람이 사정 없이 들이쳤다. 이것을 보게 된 소대장 리 명석 동무는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야밤 삼경에 대'줄 같은 비를 맞으며 그는 나무'가지며 새초를 베여다 대원들이 깰세라 발끝 걸음으로 비'바람이 들여치는 초막에 덮군 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런 지휘관, 이런 혁명 동지에가 있었음으로 하여 인민군 병사들은 전투 마당에서도 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더욱더 기세 충천하여 싸울 수 있었다.

물론 리 명석 동무의 혁명 동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일조 일석에 생겨 난 것은 아니다. 그는 평화적 건설 시기부터 군대에 복무하면서 당시 부대의 지휘관들이였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에게서 그 고결한 품성을 직접 배우게 되였던 것이다.

제대 후에도 명석 동무는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무들 가운데서 딱한 사정이라도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 주며 아픈 기색이 엿보일라치면 기어이 쉬게 하고 그가 하던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을 하나의 락으로 삼고 있다.

명석 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영예로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하지 않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알고 있다.

영예 군인이며 경로동마저 당장에는 할 수 없는 그에게 당과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환자로 쉴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시당 위원회에 찾아 가서 강경한 어조로 말하였다.

《당원인 제가 영예 군인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만 한다면 당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명석 동무를 당에서는 더 말릴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참작하여 그를 영화관에 배치하였다.

여기서도 그는 방안에 차려 놓은 고정 영사기를 맡을 것을 권유했으나 끝내 이동 영사기를 자진하여 맡았다. 그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한 같은 값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는 심산이였으며 실제 또 그렇게 했다.

리 명석 동무에게서 속심 깊이 들어 있는 아름답고 고결한 것, 그것으로 하여 그를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소박성**과 **겸손성**의 모범이다.

로동 속에서 잔뼈가 굵었고 일찍부터 당의 품'속에서 자라 난 그는 자신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며 희망의 등대인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간주하여 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위훈에 찬 공적을 남기고도, 그처럼 훌륭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도 자신은 당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3년 전 동부 전선의 어느 한 고지에서 적 화구를 몸으로 막고 장렬하게 희생된 영웅으로 알려졌던 그가 기적으로 살아 나서 오늘까지 일편단심 당과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소박하고 겸손하며 사리와 공명을 모르고 일편단심 당과 조국을 위해 몸 바쳐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는 참된 공산주의자, 진실한 당원 리 명석 동무의 이 고결한 품성을 배우자!

수 필

오직 싸우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3. 1 운동 45 주년을 맞는 날 아침에—

박 세 영

한 혈통을 이어 받은 단일 민족인 우리 삼천만 동포들이 남북으로 갈리워 살아 온지도 어언 20 년이 가까와 온다.

남녘에 있는 부모와 안해들이 북녘에 사는 아들딸들과 남편들을 그리여 잠 못 이루고, 북녘의 혈육들이 남녘에서 신음하는 부모, 처자들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래일, 오늘 래일 하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세월은 흘러 간 것이다.

이 시각에도 나의 눈 앞에는 나의 어린 시절의 요람이던 경기도 고양군의 고향 마을이며 꿈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내던 서울 거리의 낯익은 골목들이 선히 떠오른다. 1946년, 내가 북으로 올 때 태여 났던 이웃집 애도 이제는 20 대의 끌끌한 청년이 되였을 것이 아닌가! 그리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한번 가 보지 못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 두고도 만나 못 보는 이 심정을 무엇에 비기랴!

한날 한시에 해방된 조국이언만 인민이 주권을 틀어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며 청춘들의 삶과 희망은 날에 날마다 활짝 꽃피여만 가고 있다. 그러나 남녘 땅 온 천지는 그 대로 하나의 감옥으로, 인간 생지옥으로 화하여 우리 겨레들이 거기서 신음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자유와 청춘을 무참히 짓밟히우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여 자주 자립을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극히 응당한 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그 싸움의 대렬에 나의 고향 사람들, 고향의 젊은 세대들이 힘 있게 서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미덥고 반갑기 그지없다.

지금 그들의 힘 찬 투쟁 모습을 생각하는 나의 눈 앞에는 45 년 전 3.1 인민 봉기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때만 하여도 나는 열 여덟 살의 애 티 있는 청년이였건만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가슴을 끓이며 전 인민적인 3.1 봉기에 참가했었다.

오늘처럼 행복스러운 우리 나라에서, 또는 훌륭한 제도 밑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은 겪어 보지 못 한 일이지만 식민지 노예의 신세로 억눌려 사는 인민들처럼 세상에 원통한 일은 더 없는 것이다.

그 날 나 역시 시위 군중들 속에 섞이여 피타게 웨쳤다.

《조선 독립 만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로동자도, 농민도, 지식인도, 청년 학생들도 모두가 떨쳐 나섰다. 군중들의 웨침 소리는 온 서울 장안을 진감시켰다. 만세만 웨쳐도 마치 독립이 금방 되는듯 사람들은 더없이 흥분되였다. 가슴에 돌처럼 맺히였던 원한이 금시에 풀리는 것 같기도 했다.

거리에서 왜놈들은 꼼짝 못 했다. 격노한 군중들은 당시 왜놈들이 살던 진고개며 명동 좁은 골목에 파도처럼 밀려 들었다.

군중들의 시위가 고조에 달하자 왜놈들은 군대, 헌병, 경찰, 소방대 할 것 없이 다 풀어서 군중들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쓰러졌으며 서울의 가도는 붉은 피로 물들어져 갔다. 그러나 용감한 인민들은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으며 《독립 만세!》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다. 그들은 왜놈들의 상점을 짓부시였고 곤봉과 도끼로 일제 관청들을 까부시였다.

왜놈들은 수십만이나 되는 형제들을 투옥하였고 즉결 처분으로 그들을 학살하는 류례 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완강한 지구전으로 들어 간 투쟁은 그 해의 9~10월이 되도록 그치지 않았고 인민들은 끝까지 용감히 싸웠다.

당시 열 세 살 난 철산의 애국 소년 안 정명은 세 군데나 왜놈의 총알에 맞고 수 십 곳이나 창 끝에 찔리면서도 피타는 목소리로 웨쳤다.

《나의 가슴에 상처가 열인지 백인지 세여 주시오…불을 지르라, 나의 가슴에서 끓는 피의 방울방울이 불꽃이 되여 왜놈의 섬나라를 태워 버리리라! 그것을 모조리 태워 버리지 못 하면 그것을 물어 뜯고, 물어 삼키기라도 하리라!》

그 때 우리 학생들도 동맹 휴학, 삐라 살포, 시위 투쟁 등을 단행하면서 그 해가 다 가도록 일제와 끝까지 싸웠다. 나 역시 몇몇 동무들과 《자유 신종보》라는 신문을 비밀리에 찍어서는 살포하군 하였다. 끓은 밤 젊은 열정을 불태우며 구절 구절 일제를 반대하고 독립과 자유를 웨치는 글을 쓰고 등사판에 밀던 그 때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3.1의 그 날을 회상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렇듯 인민들은 영용하게 투쟁했으나 어찌하여 그것은 실패했던가!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우기 오늘의 남조선 인민들이 가슴에 사무치게 느끼고 그 날의 교훈을 심각히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그러한 체험이였다.

소위 이 운동을 지도하자고 나선 자산 계급 나부랭이들의 나약한 민족주의 떠중이들이 아니였더라면, 강력한 당의 조직적 지도 밑에 로동자, 농민이 뭉치여 나아갔더라면 그것은 얼마나 장대한 힘이였겠는가!

그러나 그 때 그 어중이 떠중이들은 일제의 압력이 가해지자 원쑤들에게 자수하고 독립을 《청원》해 나서는 비겁한 행동을 감행했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기반에서 오랜 수난과 고통을 겪어 온 조선 청년들은 그 어떤 《청원》이나 《선언》으로는 절대로 독립도 자유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체험해 왔다. 생활이 가리키는 길은 하나—오직 싸우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땅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발악은 날로 심해 가고 있다. 놈들은 이른바 《제 3 공화국》을 꾸며 내고 그 무엇인가 해결할듯이 떠벌이고 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민족 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련일 굶어 쓰러지고 있으며 아까운 청춘들과 이 나라 어린이들이 미군 야수들의 총포탄에 맞아 숨을 거두고 있다.

놈들은 요즈음에 와서는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온갖 굴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왜놈들은 《한국 행 빠스를 놓치지 말

자!》고 떠벌이면서 지금 남조선 땅에 마구 기여 들어 60여 개의 회사를 설치하고 지어 일본어를 모르는 로동자는 쓰지 않겠노라고 뇌까리며 일본말 강습소까지 설치하고 있는 형편이니 이 얼마나 통분할 노릇인가! 지난날 왜놈들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진 선렬들의 생령들까지도 땅을 차고 일어 나 통곡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놈들이건 왜놈들이건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결코 어제'날의 조선 인민이 아니다.

오늘 조선 인민에게는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있으며 강력한 물질적 힘이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국놈들을 족친 슬기로운 기개와 풍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넋을 지니고 불굴의 항쟁을 들이댄 4,19 용사들의 그 높은 절규가 아직도 남녘 땅 전역에 메아리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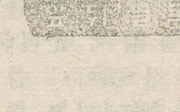
남조선 청년들은 우리의 신성한 강토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하며 그 성스러운 싸움의 마당에서 언제나 앞장 서 나가야 한다. 원쑤놈들을 이 땅에 그냥 두고는 그 어떤 자주 자립에 대해서도, 인민들의 번영과 행복에 대해서도 론의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여!

오늘 당신들의 계속되는 파업 투쟁과 시위 투쟁에 대한 소식을 나는 흥분 없이는 들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생존의 권리와 자주 자립을 절규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는 당신들의 모습이 보여 오고 있다.

45 년 전 3.1의 교훈을 잊지 말고 모두다 견결하게, 굴함 없이 반미 구국 투쟁의 전렬에 떨쳐 나서라!

우리 인민이 일치 단결하여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한다면 미제는 남조선에서 배겨 나지 못할 것이며 조국 통일의 위업은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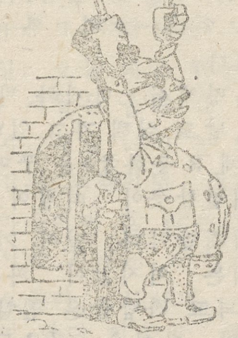


四·一九를 모독하는 자들

아재럽숨도 우수도 지나갔으니 력사의 폐지에 크게 아로 새겨진 四·一九 그 날도 눈 앞에 다가 오고 있다. 四·一九 하면 정의의 피끓는 가슴들이 원쑤들의 총칼, 최루탄, 땅크를 헤치고 리승만 독재를 꺼꾸러뜨린 날이다. 한데 박정희 도당은 무슨 연극을 꾸며 그 날을 맞으려 하고 있는가?

박 정희 도당은 지금 입만 벌리면 『四·一九 정신 계승』을 계속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김 종필을 비롯한 一二七명의 『국회 의원』들이 리 승만을 『정치 활동 정화법에서 해제』하고 『공민권을 회복』시켜 귀국시킬 것을 『청원』하는 『진정서』에 서명하여 박 정희에게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 박정희는 이미 꾸며진 연극 대본대로 이 문제를 『내각』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실화

눈속에 핀 붉은 꽃송이



삼지연군 인민 병원 간호원 김 금자 동무는 이곳 립산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금자 동무를 그처럼 사랑하는 것일가?

금자가 혜산 의학 학교를 졸업한 것은 1961년 10월이였다. 졸업을 앞두고 모여 앉아 자기들의 앞날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면 금자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했다.

《…난 어느 깊은 산간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싶어》

열 여덟 처녀의 이 결심은 확고한 것이였다. 그러기에 졸업 후 혜산에서 일하는 게 좋잖다는 친척들의 권고도, 딸을 산간 벽지로 보내게 되는 것을 남몰래 서운해 하는 어머니의 만류도 그의 결심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금자의 소원은 끝내 성취되여 그는 삼지연군 병원으로 가게 되였다.

백두산 밑 태고연한 밀림의 한가운데 새로 생겨난 립산 마을의 병원 시설은 아직 불비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남다른 열정으로 금자는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척척 해 나갔고 병원 안팎을 알뜰히 꾸리는 데도 비상한 열성을 발휘하였다. 배치된 지 얼마 안 되여 벌써 온 병원이 그를 사랑하게 되였다.

그러한 어느날이였다. 외래 진찰실에서 일하던 금자는 이런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선생님, 제 병을 좀 빨리 봐 주십시오. 그러구 내가 여기 병원에 왔다 갔다는 증명서두 한 장 해 주십시오.》

사이'문을 통하여 들여다 보니 산판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의 한 로동자가 앉아 있었다.

《…아 글쌔 이 바쁜 통에 조금만 낯색이 달라져도 병원엘 가 보라구 야단이니…내 참,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해 오지 않으면 일을 안 시키겠다나요.》

이 말을 듣는 금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 저 로동자가 자기의 병 같은 건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일하는 것도 이 좋은 제도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저런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좀더 보람 있게 일할 수는 없을가!)

며칠을 두고 곰곰히 생각하던 금자는 직접 자기가 로동자들이 일하는 산판엘 찾아 다니며 치료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민청 위원장에게 말했다.

《금자 동무 생각은 아주 훌륭하오. 그런데 여기서 산판은 40 리도 넘는단 말이요. 그리구 또 로동자 동무들이 일하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방에 몇 십리씩 널려 있거든. 한다하는 장정들도 길을 헛갈린단 말이요. 게다가 지금은 추운 겨울인데…저 창 밖을 좀 보오.》

창 밖에서는 심한 눈보라가 윙윙 전선'줄을 울리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처녀는 말했다.

《위원장 동무, 저도 민청원이예요.》

당돌한 그의 말에 민청 위원장도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후부터 금자는 휴일날마다 온 몸에 성애와 눈'가루를 뒤집어 쓰고 마치 눈사람 같이 되여 산판에 나타나군 하였다. 자그마한 처녀의 옆구리에서는 언제나 위생 가방이 달랑거리고 있었다. 아우성치는 눈보라도, 령하 40도의 혹한도 처녀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산판에 익지 못한 금자는 쓰러진 진대나무를 곰으로 헛보고 소스라쳐 놀라기도 했고 방금 지나 간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머리끝이 곤두서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길을 헛들어 겨드랑까지 눈속에 빠지며 헤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할 때 그는 더 없이 기뻤다. 입원실 간호원인 그는 때로 앓는 환자의 머리맡에 붙어서 며칠 밤씩 새울 때도 많았다. 그러다가 쉬게 되는 날이면 한잠 푹 잤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금자는 자기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다시 40 리 깊은 수림을 향해 떠나군 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금자가 왔다》, 《백두산 선녀가 나타났네》 하면서 친딸이나 동생처럼 반겨 주었다. 그들은 우등불'가에 그를 끌어 앉혀 놓고는 이렇게들 말했다.

《래일은 병원에 갈가 했는데 금자가 이렇게 찾아 와 그만 병이 싹 달아 났는 걸.》

《금자 동무가 전번에 준 약을 먹었더니 병도 낫고 힘이 부쩍 솟더군. 그래 이번 달에도 200%를 베여 제꼈수다.》

그러면 금자의 입'가엔 웃음이 피여 오르고 피로는 가신듯이 사라지군 하였다. 이런 때면 의례 금자는 벌목공들이나 밀'대공들의 일을 도와 나섰다.

어느 때인가 그가 병으로 누운 일이 있었는데 산판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 와서 병 문안들을 하였고 또 어떤 작업반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그에게 선물까지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금자는 짬짬이 약재들을 구해다 밤을 밝히며 보약들을 만들어 허약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실로 그는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던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우리 나라의 민간 약재인 솔'잎 시롭이 사람들의 건강에 그 어느 보약 못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그것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삼지연 부근에는 소나무는 전혀 없고 잣나무도 7 료장 쪽에나 내려 가야 좀 있었다.

어느 휴일날 금자는 배낭을 메고 20 리가 넘는 7 료장 쪽으로 갔다. 3월이라고 하지만 《조선의 지붕》으로 불리우는 이 곳 고산 지대는 한겨울 못지 않게 추웠고 밀림 속에는 눈이 무릎을 쳤다. 온 산판을 돌아 다니던 금자는 저녁녘에야 겨우 몇 그루의 잣나무를 찾아 내였다.

잣나무 가지는 모두 높은 데 있었다. 나무에 오르지 않고는 잎을 뜯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금자는 나무에 오를 줄 몰랐다.

(잣나무를 눈 앞에 두고도 잎을 못 뜯다니 그럴 수 없어.)

그가 아득바득하며 한 4 메터 올라 갔을 때였다. 이제 한 메터만 더 오르면 나무'가지에 걸터 앉아 잎을 뜯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다음 나무'가지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던 찰나에 그만 발이 미끄러져 쿵—나떨어지고 말았다. 순간 정신이 아득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금자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문화의 수림 속에서 사랑하는 혁명 동지를 위해 70여 일을 굶주리고 지친 몸으로 잣을 따기 위해 애쓰던 김 명화 어머니의 모습이 우련히 떠 올랐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다시 나무에 기여 오르기 시작했다. 금자는 끝내 한 배낭의 잣나무'잎을 뜯고야 말았다.

잣나무'잎을 뜯어 가지고 온 날 밤 금자는 온 몸이 솜처럼 나른했으나 밤을 꼬박 밝히며 끝내 시롭을 만들고야 말았다.

벌목공들은 금자가 산판에 가져 온 이 잣나무'잎 시롭을 마시면서 《백두산 선녀가 가져 온 영생불로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까지 붙여 주었다.

지난 해에 이 곳 삼지연 작업소 로동자들은 모두 건강한 몸으로 자기들의 년간 계획을 한 달이나 앞당겨 넘쳐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온 산판이 아끼고 사랑하는 금자의 숨은 공적도 깃들어 있었다.

금자에게는 자기의 이 모든 생활이 행복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 그것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그에 자기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데 있었다.

× ×

의사의 일을 방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것이 간호원의 주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금자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도무지 성차지 않았다.

일요일이면 산판을 찾아 가고 짬이 있으면 병원 빨래도 자진 맡아서 하고 부근 마을에 심방 치료도 나가군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에는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래서 금자는 자진하여 중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입원실을 담당하고는 환자들의 간호에 더욱 정열을 쏟아 부었다.

금자가 맡은 환자들 가운데는 30여 년 간을 앉은뱅이로 고생하던 유 어복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는 세 살 때 높은 데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이 그 몹쓸 세상에서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 보고 끝내 앉은뱅이가 되고 말았다. 하던 것이 우리 인민의 병원에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여 굽으러만 있던 그의 두 다리는 완전히 펴졌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걷지





는 못했다. 사람들은 30년을 쓰지 못한 그 다리를 어떻게 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금자는 어떻게 하든 이 아주머니가 행복한 조국의 땅 우를 활개치며 걸어 보게 하고 싶었다. 수술을 한 그가 이제 걷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책임처럼 느껴졌다.

침구 료법은 김 순옥 의사가 맡고 다리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 료법은 금자가 맡았다.

금자는 자기가 맡은 운동 료법이 환자가 걸을 수 있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 대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20여 명의 입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바쁜 몸이였지만 새벽부터 하루 네 번씩 정한 시간만 되면 꼭꼭 아주머니한테 규정된 운동을 시켰다. 밤이면 그의 곁에 앉아서 수십년 간 기능이 마비된 다리에 혈액이 잘 순환하도록 두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금자는 그만 독감을 앓게 되였다. 불'덩이 같이 온 몸이 달아 올라 정신을 못 차릴 지경에도 그는 어복 아주머니를 생각하였다.

(다리 훈련을 어떻게 했을가?)

비틀거리며 입원실로 온 금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복 아주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는가!

《아주머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금자는 한편 그가 야속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나 때문에 공연히 헛고생만 하지 말라구, 난 아무래도 걷기는 틀렸 걸 뭐…》

수술한 지 석 달이나 지나도록 제대로 서지도 못 하는 환자는 실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걷기를 원하던 그였으랴! 그의 눈물을 본 금자는 야속한 생각은 가뭇 없이 사라지고 측은한 생각이 났다.

《마음이 꺾이면 몸도 꺾이는 법이예요. 일어나 훈련해요.》

금자는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 하아나…둘, 하아나…둘》

한 사람은 힘을 모아 이끌고 한 사람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마냥 발을 떼여 놓고, 물은 필사적인 돌격전에서처럼 땀을 철철 흘리며 걸음 련습을 했다.

《하…아…나, 두…ㄹ》

금자는 저도 모르게 정신이 흐려 왔다. 그러다가 금자는 환자를 붙든 채 그만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금자야! 금자야!》

어복 아주머니는 금자의 목을 끌어 안고 목메여 불렀다.

《아주머니, 내가 그만 실수를 했군요!》

환자 앞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감추려는 금자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된 어복 아주머니는 끝내 흐느끼고야 말았다.

《금자야 내 꼭 잊지 않고 훈련해서 이 다리를 고치고 말테다!》

《아주머니!》

그 후부터 어복 아주머니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한편 금자의 끊임 없는 방조 밑에 쑤시는 아픔을 참고 자기 혼자 걸음 련습을 했다. 처음에는 침대를 붙잡고 다음에는 지팽이에 의지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다. 그러면 금자는 그에게 회상기도 읽어 주고 병을 의지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 주면서 그의 신심을 돋구어 주었다.

그러기를 너 달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입원실 쪽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났다. 거기에는 어복 아주머니가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그는 아무 것도 붙잡지 않고 서서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떼고 있었다.

《아주머니!》

금자는 너무나도 기뻐서 와락 어복 아주머니를 끌어 안으며 웨쳤다. 어복 아주머니의 눈에도 주위 사람들의 눈에도 모두 감격의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리하여 좋은 세상을 두고도 다리 때문에 불행을 겪던 한 사람이 자유로이 활개치게 되였다. 어복 아주머니가 대지를 걷게 된 것을 어찌 발전된 의학에만 의해서라고 하랴!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남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의 지성이 그 불치의 병을 고치게 하였던 것이다.

본사 기자 김 영길



사회주의 건설과 제품의 질 제고

김 신형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전체 인민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 모든 제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들이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내면서 그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곧 사회주의적 내용을 거기에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것은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인민들에게 편리하며 아담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건설되는 모든 것,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주의적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제품의 질 제고가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라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건설과 제품의 질 제고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며 반대로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하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며 높은 속도의 생산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 빨리 튼튼하게 다지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킨다.

례컨대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질을 높이여 기계 설비들의 성능과 수명을 종전보다 훨씬 제고시킨다면 있는 설비와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여 그 만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신발이나 천 등을 종전의 것보다 아름답고 쓸모 있게 만들면서 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량적으로 동일한 개수의 제품을 만들어 내였다 하더라도 실지 사용하는 면에서는 배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

이것을 만든 사람의 립장에서 볼 때에는 같은 자재와 로력으로써 생산량을 2배로 증대시킨 것으로 되며 소비자의 립장에서 보면 동일한 금액으로써 그 수명이 2배나 되는 제품을 사게 된 것으로 되여 생활은 더욱 향상되게 된다.

때문에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은 제품의 질 제고에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일상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게 되며 따라서 제품의 질은 계통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리윤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 만큼 제품의 질 제고는 그들의 리윤을 증대시키며 자본가 호상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실현되

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은 제품의 질 제고에 대하여 아무런 리해 관계를 가지지 않으나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여 부득불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질 제고를 위한 일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 질 제고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질 제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억압, 세기적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쓰기에 편리하면서도 보다 성능이 좋은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보다 질 좋고 다양한 생활 필수품들을 대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 전 당이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에 소비품 생산을 135%로 증대시키며 최근 1~2년 내에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3만 종 이상으로 확대하며 2~3년 내에 모든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의 해결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문명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대외적 위신을 더욱 제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미제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품의 질 제고는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이 결심하고 해결하려는 가장 중요한 혁명적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 걸쳐 질을 높일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 세웠다. 건설에서도 질 제고, 공업 생산에서도 질 제고,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데서도 질 제고, 도처에서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모든 제품의 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튼튼한 원료 기지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제품이라도 자체의 힘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의 무궁 무진한 힘이 있다.

문제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어떻게 동원 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면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매개 사람들 자신이 한 개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심정으로 더 알뜰하고 쓸모 있게 만드는 높은 책임성과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제품의 질 제고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활짝 꽃피게 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모두가 다 제품을 되는 대로 만드는 낡은 습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으로 모든 제품을 성의껏 만드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현존 공장들을 더욱 알뜰하게 꾸리고 모든 공장들에서 새 기술을 부단히 도입하며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한다.

기술 기능을 높이지 않고서는 새 제품을 다량 생산할 수 없고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도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는 인민 소비품을 선진적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없다. 청년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 기술 학습, 기술 전습 체계에 망라되여 남이 한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를, 남이 두 가지를 배우면 세 가지를 배우려는 높은 각오 밑에 애써 기술을 배워야 한다.

기술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규률과 제도를 확립하며 검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기술 혁신 운동의 앞장에 서서 정력적으로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며 과학 기술의 새 성과를 남김 없이 생산에 도입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 자신의 문화성, 특히는 미'적 소양을 높이고 생산의 전반적 부문에 걸쳐 생산 문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 문화란 생산 관리와 생산 로동,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이며 조직적인 정연한 질서를 세우고 로동자들의 문화 위생 수준을 제고하며 작업장 내의 청결과 정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들의 문화성이 높지 못하고 작업장이 불결하고 정돈되지 못한 곳에서는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문화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없으며 제품의 질을 제고할 수 없다.

생산 행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생산자들의 문화 수준이 높을 때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다양해 지고 더 아름다와 지며 천리마 시대에 상응한,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생산자들이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당에 충실하며 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각오 정도가 높다 하더라도 만약 미'적 감정과 정서적 소양이 저속할 때에는 결코 우리 시대에 알맞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제품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좋은 방도의 하나는 최근 신의주 고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기한 생산 공정들간에 《련대적으로 질을 높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제품 생산의 매개 공정에서 표준 조작법을 비롯한 기술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더 많이 도입하며 높은 생산 문화를 도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운동의 내용이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광범히 조직 전개한다면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서 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련대적으로 질을 높이는 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특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서 온갖 창발성과 정성을 발휘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아름답고 쓸모 있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야 한다.



정성과 지혜를 다 바치여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타올 수건을 흔히 무심히 대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한장의 타올 수건에도 로동자들의 지극한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씨가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자!

신의주 타올 공장 청년들의 로동 생활에서 그 몇 가지를 찾아 보기로 하자.

《보이지 않는》 흠'집을 두고

분기 생산 계획을 좌우하는 마지막 10일 전투가 한창이던 때 일이다. 직포공 박 명자 동무는 자기가 짜 낸 타올 수건에서 흠'집 하나를 발견하였다. 흠'집이래야 코실 몇 개가 돌아 나지 않은 것인데 얼핏 보기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였다. 검사원도 여간 깐깐히 살피지 않고서는 찾아 낼 수 없을 정도였고 설사 발견했다 하여도 별 문제로 되지 않는 흠'집이였다.

명자는 이 흠'집을 고칠 것인가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인가 하고 잠시 망서리게 되였다. 그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망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명자는 자기 로동의 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동무였다.

한 번은 검사원이 명자네 작업반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흠'집 하나를 찾아 낸 일이 있었다. 기름 묻은 먼지가 날아 와 약간 오염시킨 것이었다. 명자는 이런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족점마저 그냥 스쳐 지낼 수 없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로동에 대한 진지한 총화를 한 다음 우선 자기 기대의 청소를 보다 깨끗이 하기 위한 일부터 시작했다. 동무들도 그의 모범을 따랐다. 그것은 삽시에 전 작업반적인 운동으로 되였다. 며칠 사이에 작업 현장은 깨끗해졌다. 그러나 명자는 이런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 하루는 수직원이 휴식날조차 나와서 기대와 작업장을 청소하는 명자를 보고 그만하면 깨끗한데 뭘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박 명자 동무는 방긋이 웃으며

《래일 아침 갑자기 일을 시작하면 휴식날 쌓인 먼지가 날아 와 제품을 더럽힐 수도 있지 않아요》 하고는 여전히 하던 청소를 계속했다.

얼마나 제품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동무인가? 이런 동무가 지금은 어찌하여 망서리고 있는 것인가? 명자는 순간이나마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거야 뭐 별 문제가 될 흠'집이 아닌데… 이 바쁜 때에 자그마한 것을 고치노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작업반의 분기 생산 계획에 지장을 주면 어찌나!〉

그러나 명자는 또 다음 순간 자기를 나무랬다.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을 했담, 이런 행동은 당과 인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야, 질보다 량에 치중하거나 사람들이 보고 잘 감촉할 수 없는 흠'집이라 하여 그냥 스치고 지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명자는 비록 순간이나마 그릇된 마음을 먹은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그는 얼굴까지 빨개지며 기대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는 다 짠 제품을 손으로 다시 되풀어 고치기 시작하였다.

명자는 그 날에 있은 민청 분조 회의에서 자기가 순간적이나마 잘못 생각한 사실에 대하여 솔직히 비판하였다. 물론 다른 동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이 알고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조직 앞에 감추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동무들은 곧 명자의 이런 모범을 따랐으며 이는 작업반의 분기 생산 계획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힘으로 되였다.

명자의 이 지극한 정성, 이런 고귀한 마음씨를 어찌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고서야 생각인들 할 수 있겠는가!

서른 두 번째만에

공장에서 돌아 온 김 윤국 동무는 책꽂이의 책들을 이것저것 골라 뽑아 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아예 연구를 그만 두고 동무들에게 책을 돌려 주자는 심정에서였다.

아름다운 타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명하고 산뜻한 색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윤국 동무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척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는 표백과 염색에 관한 서적이라면 손 자라는 것은 다 구해다 연구도 하고 실험도 거듭했다. 그러나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선명한 색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늘은 이런 실패를 서른 한 번째 반복하고 돌아 온 것이다. 그래서 아예 단념하고 도서실과 동무들에게 돌려 줄 책들을 골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가 의지가 약해서 이러는 것인가? 동무들은 결코 그를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의 규모가 갑자기 커졌을 때 있은 일이다. 이 때 공장에서는 큰 난사가 한 가지 생겼다. 그것은 그 때까지 실을 삶고 표백하는 데 리용하는 용수를 우물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산의 확대와 함께 우물로써는 도저히 용수를 충당할 수 없게 되였다. 수도를 설치해야겠는데 때는 추운 엄동설한이였다. 이렇게 되자 봄이 올 때까지 생산을 종전 대로 우물 용수로써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 때 윤국 동무는 《어찌 생산을 잠시라도 늦출 수 있단 말이요》하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선두에 나섰다. 그러나 곤난은 상상 외로 더하였다. 땅이 언 데다 큼직큼직한 돌까지 섞여 나오는데 도저히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런데다 윤국 동무는 그 때 속탈로 몸까지 불편했었다. 이 기미를 알아 차린 동무들은 그를 집에 돌려 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그는 《어렵고 힘든 부문의 앞장에 서서 싸워야 할 민청원의 량심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소》하고 더욱 다우쳐 곡괭이질을 하였다. 그는 바로 이러한 청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실패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물러 서려고 하는가!

마침 책을 정리해 가던 윤국 동무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눈에 띄였다.

《죽어도 인민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인민의 사랑 속에서 살며 싸우자!》

이것은 윤국 동무가 최 현 동지의 회상기를 연구하면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써 붙인 것이였다. 그는 몇십 번이고 이것을 되풀이 해 읽으면서 생각하고 모대기였다.

(내가 연구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인민을 위한 사업에서 물러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는 책을 정리하던 일'손을 멈추고 다시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이 떠돌고 있었다.

바로 이튿날 새벽이였다. 윤국 동무는 웃옷도 벗은 채 공장으로 달음박질 쳐 왔다. 그리고는 약품실에서 병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동무들에게 내밀었다.

《다시 한 번 실험해 봅시다.》

동무들도 그의 열정에 새삼스러히 놀랬다.

아침 해가 떠 오를 무렵이였다. 실험한 색실을 가지고 나와 해'빛에 비쳐 본 동무들은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에 황홀해져서 그만 환

성을 울렸다. 서른 두 번째만에 성공한 것이다. 윤국 동무의 홍분된 얼굴은 아침 해'살에 더욱 붉게 타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가!

어제 저녁 밤을 꼬박 새우고도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없다. 그의 가슴에는 틀림 없이 인민을 위하여 또 하나의 일을 했다는 궁지가 솟아 나고 있으리라!

백 이십 여 종!

상점에 갔던 문 미순 동무는 자기 일을 다 못 본 채 종종 걸음으로 돌아 오고 말았다. 사연인즉 손님들이 미순 동무의 공장에서 생산한 타올 제품을 들여다 보며 판매원에게 더



◀그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야▶

고운 색갈의 수건은 없는가고 자꾸 묻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였다. 판매원은 얼굴을 붉히며 미처 답변을 못 하고 있었다.

미순 동무는 그것이 마치도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들리였다. 미순 동무는 그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인민들의 색에 대한 기호는 그야말로 다양한 것이다. 점잖은 색을 좋아 하는 나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산뜻하고 선명한 색을 좋아 하는 젊은 동무들도 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은 다 다르며 그것도 여름과 겨울 등 계절에 따라 또 다를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문화적 소양과 미'적 정서가 높아 갈수록 그들의 기호와 취미도 날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실나리공들은 고정된 몇 개의 색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공장엔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 보는 기술자가 없는 탓인가! 아니야, 청년들이 마음 먹고 하면 못 해 낼 일이 어디 있담. 그런데 미처 머리를 쓰지 못 한 것은 아직 아름다운 색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야.)

다음날부터 그는 주위 사물을 하나 놓치지 않고 찬찬히 살펴 보는 습관을 붙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그림책과 화보는 물론 벽에 붙어 있는 그림 하나도 무심히 보고 지내지 않고 색 조화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와질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고대 유물들을 구경할 때면 어떤 색소와 문양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을 찾아 내군 하였다. 여기서 잘 해명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안면 있는 화가를 찾아 가 열심히 배우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진한 색으로부터 점차 연한 색으로 옮겨 놓는 데는 어떤 색이 더 빛을 내며 흰색에 하늘색을 받치는 것보다 노란 색에 하늘색을 받치는 것이 더 선명해 진다는 등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였다.

어느 날이였다. 그는 동무들과 함께 진달래꽃 만발한 산에 올랐다. 산 아래 모판에서는 몇몇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신통히도 흰 수건들만 쓰고 있었다. 젊은 녀성들이 모두 꼭 같은 흰 수건만을 쓰고 있는게 아무리 보아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 그는 수건에다 고운 진달래 색을 받쳐 주면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진달래꽃 속에 앉아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늘 가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하루 아침은 그가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동무들에게 달려 왔다. 그러면서 한 장의 도안을 내 보이는데 그것은 정말 동무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양이였다. 알고 보니 미순 동무는 다양한 색갈을 배합시켜 보다 아름다운 타올 제품을 만들 수 없겠는가 하고 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마음에 드는 도안이 떠 오르지 않았다. 무슨 도리가 없을가 하고 안타깝게 가슴을 태우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친한 동무로부터 평양에서 국가 미술 전람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래 그는 휴식일을 리용하여 평양에 올라 가 전람회를 관람하고 거기에서 착안하여 도안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였다.

그는 이와 같이 남 모르는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백 이십 여 종에 달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냈다.

백 이십 여 종! 어찌 이것이 단순한 수'자이겠는가!

기자는 마침 그가 만들어 낸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한참 보고 있노라니 활짝 핀 진달래 꽃발에 몸이 잠긴 것 같기도 하고 칠색 무지개를 타고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 오는듯한 느낌도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한 민청원 처녀의 고결한 정신과 아름다운 정서의 반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본사 기자 하 만춘

고포나 가위'밥을 리용하면

고포나 가위'밥을 재생하면 솜이 되고 천이 된다. 우리 나라의 매개 가정에서 고포, 가위'밥을 4 키로 그람씩만 모은다면 1,600 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으며 이것은 4천 톤의 솜을 절약하는 것으로 된다. 이만한 솜을 생산하자면 무려 5,000 정보의 경지와 2천 톤의 화학비료, 15만 톤의 자급 비료 그리고 또 막대한 로력이 필요한 것이다.

왜 흙을 구우면 좋은 비료가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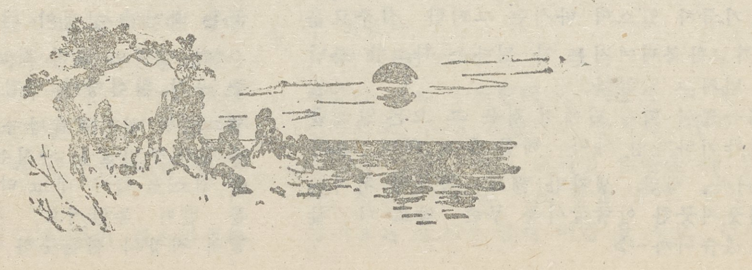
흙에는 질소 린 가리 등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여 있는바 식물은 그것을 그 대로는 흡수하지 못 한다. 식물은 가용성 질소 가용성 린 가용성 카리만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흙을 구우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져 가용성 질소 린 카리 등의 량이 많아지고 그의 효능도 훨씬 높아지게 된다.

례하면 100 그람의 흙을 130 도의 온도에서 구울 때 가용성 질소의 량은 6.4 미리 그람 증가되며 200 도에서 구울 때는 28.5 미리 그람 증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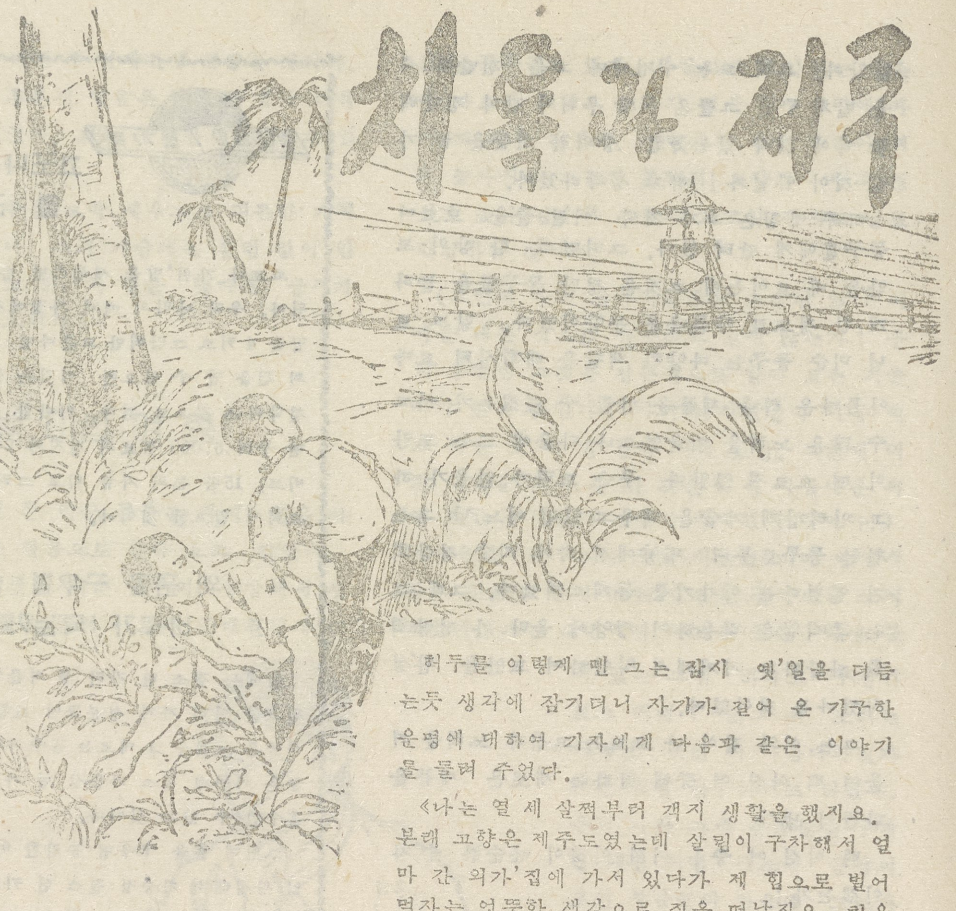
가용성 린의 량은 300~400 도에서, 가용성 카리의 량은 400 도에서 구울 때 가장 많아진다.

때문에 질 좋은 자급 비료를 얻기 위해 흙을 굽는다.



실화

치욕과 저주 속에서





치욕과 저주 속에서 뛰쳐 나온 한 로동자는 말한다!

조선 징용자들은 놈들에게 어떤 저주를 던졌던가?

일제 야수들은 조선 징용자들에게 어떤 치욕을 들씌웠던가?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기구하고 불운한 행로와 그가 산 시대의 단면을 알 수 있다.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 석중은 영예로운 천리마 기수이며 공로메달 수훈자이다. 오늘 그의 생활은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하다. 그러나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에서 왜놈들의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빈궁과 죽음의 기로에서 허덕이던 실업자의 한 사람이였다.

기자는 며칠 전 그를 만나려고 그의 집을 찾은 일이 있다. 그에게서 들은 그의 지나 간 반생에 대한 이야기는 흘러 간 시대에 대한 저주로 가득차 있으며 다시는 그러한 저주로운 나날이 반복되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넘치고 있었다.

《왜놈들의 학정 밑에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해를 두고 해도 모자랄겝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 지긋지긋한 이국살이를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허두를 이렇게 뗀 그는 잠시 옛'일을 더듬는듯 생각에 잠기더니 자기가 걸어 온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나는 열 세 살적부터 객지 생활을 했지요. 본래 고향은 제주도였는데 살림이 구차해서 얼마 간 외가'집에 가서 있다가 제 힘으로 벌어 먹자는 엉뚱한 생각으로 집을 떠났지요. 처음엔 부산에 있는 일본놈의 어물 상점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했습니다. 주인놈이 어찌나 린색한지 밥도 제 대로 안 먹이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서 뛰쳐 나와 밀선을 타고 일본에 건너 갔지요. 어델 가나 나같은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데가 있습데까, 공연히 나는 경찰놈들한테 붙잡혀 매만 죽도록 맞고 고향에 되돌아 왔습니다. 집에 와 보니 〈징용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 간 석중이는 시바우라라는 곳에 가서 얼마간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밤'중에 다시 수송선에 실려 어디론가 떠났다. 수송선이 일본 땅을 떠난지 한 달만에 가 닿은 곳은 태평양 전쟁의 최전선인 마샬 군도였다.

《참 멀리도 끌려 갔더랬지요, 함께 간 일행 중 우리 칠십명이 내린 곳은 워제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이였습니다. 왜놈들은 섬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한편 딴 섬으로 쫓아 내고 비행장과 포대 시설 공사를 벌여 놓았지요. 우리는 총칼의 위협과 열대 지방의 찌는듯한 더위와 무서운 병마가 엄습하는 생지옥 속에서 놈들이 강요하는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참 그 때 겪은 일들은 억년 잊을 수가 없지요…》

왜놈들은 징용으로 끌려 간 조선 사람들을 몇 사람씩 나누어서 제놈들 틈에 끼워 놓고는 짐짝 꼬리표 같은 패쪽을 하나씩 목에 걸어 주었다. 패쪽에는 암호 표시와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번호가 사람의 이름을 대신했다. 밥도 번호를 외워야만 주었다.

왜놈들은 섬에다 순찰병을 무수히 풀어서 쥐 한마리 새여 나가지 못 하게 경비진을 친 데다가 공사 현장에는 감시병을 세우고 감독과 십장놈들에게 총칼이나 목검을 들려 주어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 하게 만들고 일을 시켰다.

남방에서는 새벽 세시면 날이 밝는다. 십장놈들은 동이 트기 전부터 목검을 휘둘러대며 미친개 모양 그들을 내몰았다. 끌려 간 사람들은 열대 지방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이고 진종일 일을 하자니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에 눈앞이 캄캄해 지군 했다.

《길게 말할 게 없지요. 글쎄 생각 좀 해 보시우. 하루 600 그람이 되나마나 한 콩깨묵에 소금'국을 마시고 역마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역에 시달렸으니 사람 몰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은 해'볕에 새까맣게 타고 먹지 못 해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끌끌하던 청장년들이 영양 실조와 일사병에 걸려 일터에서 푹푹 쓰러져 나갔지요. 해'볕에 익어서 생가죽이 벗어진 등어리에 채찍을 받으며 죽지 못 해 하던 일…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막 몸서리가 납니다.》

왜놈들은 그처럼 악착하게 부려 먹으면서도 걸핏하면 조선 사람을 치고 갈겼다.

섬 기슭에 배를 댈 수 있게 잔교를 세울 때 일이다. 그 날 석중이는 아름드리 원목을 메나르다가 그만 맥이 진하여 눈앞이 아찔하는 순간 원목을 멘 채로 쓰러지고 말았다.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개자식. 일이나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가?》

구보다라는 일본 감독놈이 쨍하고 달려 오더니 목검을 거머쥐고 연거퍼 그의 허리를 내리쳤다. 몸을 뒤틀던 그는 끝내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늘어지고 말았다.

수송선에 실어 온 무기나 탄약을 부릴 때는 왜놈들의 행패가 더 심했다.

한 번은 무기 상자를 물 속에 떨어뜨린 사고가 있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원래 약골인 데다가 징용에 끌려 온 후 페가 더 나빠져서 기침할 때마다 피를 쏟군 하던 젊은이였다. 그는 고향에 두고 온 늙은 홀어머니와 젊은 안해를 다시는 살아서 만나 볼 것 같지 못 하다면서 늘 한숨을 짓던 가엾은 동무였다. 그 날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나지 못 한 것을 십장놈이 강제로 끌어 내다가 무기 상자를 메웠던 것이다. 그런데 왜놈들은 그를 붙들어다가 지독하게 고문을 가한 나머지 《반역죄》라는 루명을 씌워 총살하고 말았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나운 모기떼와 싸워야 했고 무서운 병마를 이겨내야만 했다. 모기에 물리면 생살이 썩어 났고 열병에 걸려 죽었다. 왜놈들은 조선 사람들이 열병이나 전염병에 걸리면 무작정 격리 병실에 끌어다 넣고 약은 고사하고 물 한목음도 주지 않았다. 격리 병실이란 실은 쇠창'살을 댄 감방이였다.

환자들은 40 도가 넘는 고열에 신음하면서 정신을 잃고 이가 부서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고 쇠창'살을 휘여 잡다가 숨을 거두군 하였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였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그 때 일이 선하지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 편 사람들을 살려 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서로 밥을 덜어 종이에 싸가지고는 보초병 몰래 쇠창'살 새로 던져 주

있습니다.

정말 수만 리 이역에 끌려 가 보니 못 견디게 그리운 것은 내 조국, 내 고향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처럼 신물이 나도록 망국노의 쓰라림과 설음을 겪어 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몰래 도망칠 궁리를 했지요. 암만 생각해 봐야 그냥 견디여 낼 성싶지 않더군요. 그러나 누구도 그 놈의 소굴에서 빠져 나갈 묘책을 생각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그냥 있게 됐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왜놈들이 전쟁에서 차츰 몰리게 되고 급해 맞게 되자 조선 사람들에 대한 학대는 극도에 달하게 되였습니다…»

왜놈들은 비행장과 포대 건설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되자 군사 시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구실 밑에 조선 사람을 비밀리에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석중이가 있는 곳으로 왜놈 졸병 몇이 찾아 와 조 홍서라는 사람을 데려 갔는데 그는 돌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 떠났다. 그들은 수림 속과 바다 기슭을 샅샅이 뒤지던 끝에 북포대 근처에 있는 어느 한 굴 속에서 무참히 살해 된 조 홍서의 시체를 찾아 냈다.

석중이는 치를 떨었다.

«자, 무슨 변통을 냅시다. 해 보든가 도망치던가…»

사람들의 눈'동자에서는 불'길이 일었다.

원쑤들은 제 놈들의 죄상이 드러나게 되자 조선 사람들을 몽땅 잡아 없앨 흉악 무도한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사생결단하고 그 죽음의 섬에서 빠져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어차피 앉은 자리에서 귀신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오리메지라는 섬에 가서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견디여 내면 고향에 돌아 갈 날은 온다) 우리는 오직 하나,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싸우며 왜놈들이 패망하는 그 날까지 반년 이상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 오긴 했습니다만 그 때 같이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목숨이 붙어 온 사람은 몇이 안 되였지요. 살아 생전에 다시 고국 땅을 밟아 보리라던 간절한 념원을 종내 풀지 못하고 산 설고 물 선 수만 리 이역 땅에 원한을 품고 이국의 고혼이 된 동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속담과 같이 그게 다 왜놈들에게 제 나라 제 땅을 빼앗겼던 탓이였지요. 그런데 만고역적 박 정희란 놈이 천추에 잊을 수 없는 일본 침략자들에게 다시 조선에 들어 올 길을 열어 주고 있다니 어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석중이는 이야기를 끝냈다. 골수에 사무친 철천지 원쑤 일제에 대한 불 같은 증오와 저주로 하여 날카로와진 그의 두 눈'동자에는 모진 굴욕과 학대와 빈궁에서 영원히 벗어 난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당당한 긍지와 함께 그러한 생활을 다시 강요하려는 그 어떠한 원쑤도 단주먹에 요정내고야 말리라는 억센 결의가 력력히 어려 있었다.

본사 기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김 판 준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자유에 대한 지향이 누구보다도 강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짐으로써만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다. 또한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짐으로써만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반동적 본질을 리해할 수 있으며 온갖 부르죠아적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의식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자유화》요, 《순수 민주주의》요, 《완전 민주주의》요, 하면서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계급 투쟁을 포기케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 ×

자유—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인간들의 사회 생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구체적 개념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는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에 대한 문제도 해당한 사회적 관계와 밀접히 결부시켜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를 사회적 관계와 결부시켜 볼 때 그것은 계급 사회의 경우에는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하여 계급 사회에서 모든 계급에게 《평등한 자유》 또는 《민주주의》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에 의하여 실시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모든 계급에게 평등한 《자유》, 《민주주의》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유이며 민주주의인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즉 자유를 계급적 립장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레닌은 자유에 대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누구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무엇에 있어서의 자유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자유의 이와 같은 계급적 성격으로하여 그것은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 대는 《자유》, 《민주주의》가 사실에 있어서 부르죠아적 자유이며 부르죠아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르죠아적 자유, 부르죠아적 민주주의란 극소수 착취 계급에게 국한된 《자유》이며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협애하며 제한적이며 허위적이며, 위선적이며 부자에게는 천국이고 피착취자, 빈자에게는 함정이며 기만》인 《자유》이며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이것을 미 제국주의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오늘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미국에는 근 600만의 완전 실업자와 기타 수 많은 반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맥카란법》, 《스미스법》 등의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미국의 견실한 공산당원들과 진보적 인사들이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투옥되며 박해 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도 보장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참혹하게 탄압 학살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자유로운 사회》인 미국은 《가장 공고한 조직체》라고 떠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도 《자유》롭고 《문명》하고 《공고한 조직체》라는 미국에서 야만 행위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 한해 동안에만도 그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에 의하면 평균 58 분만에 1건의 살인 사건, 매 39 초만에 1건의 절도 사건, 매 6분 만에 1 건의 강도 사건, 매 34 분 만에 1 건의 강간 사건, 매 4 분 만에 1 건의 몸서리치는 폐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미국을 《문명》하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던 이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도 미국식 《자유》의 덕택으로 백주에 총탄에 맞아 쓰러졌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표방하여 나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것이다.

미국식 《자유》의 본질은 그들이 강점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도 례외 없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이며 매국 매족적인 정책과 파쑈 테로 통치에 의하여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700 만을 헤아리는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하루하루의 연명을 위하여 헐값으로 자기의 로동을 지주, 자본가들에게 팔며 놈들의 채찍 밑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다. 생활은 이러한 데다가 남조선 사회에는 말세기적이며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왜풍이 범람하고 있으며 패덕 패륜과 범죄가 그칠 줄 모르고 일어 나고 있다. 이렇게 썩어져 가는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하여 정치적 자유와 생활 상 권리를 위하여 파업이나 시위를 하면 《반국가법》, 《파괴 활동 방지법》 등으로 혹독하게 탄압하고 있다. 또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정당을 조직하려는 것은 사형 당해야 할 범죄로 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형편에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사회 정치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 당하고 있다. 소위 《자유 선거》의 구호 밑에 《국회》 선거가 여러 번 조작되였지만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단 한명이라도 들어 가 본적은 없으며 12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은 학교의 문전에도 가 보지 못 하고 무지와 몽매에 파묻혀 있고 60여 만의 고학생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실로 미제의 식민지 통치 19년 간에 남조선에 남은 것은 파산과 혼란과 악덕 뿐이며 청년들에게 차례진 것은 학대와 무권리, 빈궁과 죽음 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란 하나의 공담에 불과하며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개념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란 착취자와 억압자들을 위한 자유이며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류혈적 탄압에 순종해야 하는 《자유》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가 아닌 《자유》를 떠벌이고 있는 자들은 비단 제국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도 제국주의자들과 같이 소위 《자유화》의 구호를 들고 나옴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조성시켜 혁명을 말아 먹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자들의 《자유화》의 본질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하고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며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계급 투쟁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떼여 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대신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자유를 보장》하는 《완전 민주주의》, 《순수 민주주의》를 고창하고 있다.

찌또 도당은 소위 《특수한 사회주의》라는 리론을 류포시키면서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부르죠아 공화국에로의 변질의 길에 들어섰으며 국가 사회 정치 생활 전반에 자본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은 《인권 옹호》와 《개인 미신을 반대한다》는 미명 하에 지난 시기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음모로 처단된 반혁명 분자, 제국주의 주구들을 비호해 주기까지 하고 있다. 그들은 저들의 이러한 반역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오늘에 와서는 마치도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사명이 완전히 수행되였기 때문에 계급을 초월하는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완전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 때 이미 폭로 분쇄된 최 창익, 박 창옥 등 반혁명, 반당 종파 도당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면서 반혁명 분자들과 원쑤들에 대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나섰다.

사실 착취자들과 반혁명 분자들에게까지 《완전 민주주의》를 허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유를 제한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근본적으로 적대되는 악의에 찬 독설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적 원쑤들의 파괴 음모 활동을 방조하는 것 외 아무 것도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란 극소수 착취 계급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로서 이것은 광범한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그의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극소수 착취 계급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오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침략 및 파괴 책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사람들의 사상 의식 속에 아직도 낡은 사회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은《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구호 하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인 규률을 반대하면서 이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대치시키고 있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관료주의 및 관료주의적 국가주의》이며 사회주의 국가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의연히 일종의 경향으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국가적 규률과 지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또한 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규률과 지도에 의하여 《국가 기관 사업에 미치는 광범한 근로 대중의 영향과 그들이 정권 기관 및 경제 관리 기관에 참가하는 데서 오는 창발성의 발현이 물론 제한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권 기관에서 로동자들을 내몰고 그 자리에 혁명의 변절자, 반혁명 분자들을 인입함으로써 사실에 있어서 국가 기관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가 아니라 부르죠아들의 리익을 위한 도구로 복무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규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하에서 당의 규률과 사회적 및 국가적 규률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하에서 규률과 사회적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사회와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며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담보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규률에 대립시키고 무원칙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적대되는 계급적 립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로선, 정책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자유》와 《민주주의》도 허용 할 수 없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은 《전 인류적 문학》, 《전 인민적 예술》을 운운하면서 문학 예술 창작에서 당성, 인민성을 거부하고 《창작의 자유》를 내세워 타락과 염세와 색정적인 작품들을 창작케하고 있다. 한편 수정주의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일반 만을 절대화하면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반대하는 사상 교양 사업도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부 나라들에서는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고 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적인 청년들 속에서는 점차 물질 문화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부르죠아 사상의 독소에 감염되여 안일성과 해이성, 권태증이 조성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청년들로 하여금 개인 리기주의, 부화와 타락, 극도의 염세주의 그리고 분별 없는 향락과 《사랑》에 무젖게 하는 것이다. 결과에 이런 나라들에서 청년들은 타락과 절망, 현실 생활에 대한 혐오와 불만, 래일에 대한 공포와 허무에 사로 잡히고 있다. 어떤 나라의 청년 신문에서는 《오늘을 위해 살고 오늘을 즐기자, 래일에는 무엇이 일어 날지 누가 알겠는가.》고 공공연히 《호소》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노래와 춤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위임한다》고 까지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일부 청년들은 부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썩어 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무젖고 있다.

사태는 바로 이렇다. 이것이 오늘 날 수정주의자들이 떠들어 대는 《자유》이며 《순수 민주주의》의 진상이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이 떠들어 대는 《자유》의 본질은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 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을 돕기 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부르죠아 제도를 복귀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이와 같은 립장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일반>을 론하는 체 하면서 부르죠아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오늘 날<독재 일반>을 반대하는 체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여 울부짖는 것은 사회주의를 직접 배반하는 것이며 부르죠아지 편으로 사실 상 넘어 가는 것이며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할 로동 계급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부르죠아적 개량주의를 옹호》하는 데 있다.

결국 이것은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혁명적 의식과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며 부르죠아지 편으로 떨어지는 반역자의 립장인 것이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자유》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는 본질에 있어서 모두다 진정한 자유로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거부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은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 났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배우며 조국과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홍겹게 일하고 있다.

18 세 이상의 공화국 북반부 청년들은 각급 인민 주권 기관에 자유롭게 선거 받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교육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있으며 255 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각급 학교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다. 모든 청년들이 자기의 재능과 지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이 보장되고 있으며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였으며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안고 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확고히 수립되고 그 독재 하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 있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 나라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확고히 수립하고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행복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침입으로부터 이겨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실제 생활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귀중히 여기며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 바쳐 일하고 있으며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며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더욱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



공산주의자의 주체적 립장

김 성 우

공산주의자의 주체적 립장이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이라는 주견과 자기 나라의 혁명은 자기 나라 인민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져야 하며 또 책임지고 해낼 수 있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철저히 복종시켜 나가는 혁명적 립장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력사적 사명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세계 혁명은 매개 나라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공산주의자들은 호상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면서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 승리를 위하여 온갖 혁명적 정열과 창발성을 다 발휘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물이 있고 풀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며 인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면서 만난을 뚫고 자기 나라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주체적 립장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항상 견지해야 할 혁명적 립장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 수행의 매 단계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승리적 업적은 우리 당이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항상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온 결과에 이룩된 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 립장은 자기의 깊은 력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의 주인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조선 인민이며 그들이 조선 혁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가지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조선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을 믿고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그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혁명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켰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주체적 립장은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였으며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주체적 립장은 맑스-레

닌주의 원리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혁명 수행에서 그 나라의 주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호상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매개 나라 혁명 발전의 결정적 요인은 그의 내부적 력량이다. 물론 국제적 지지와 원조는 매개 나라 혁명 승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되며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은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그러나 국제적 지지와 원조가 아무리 크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그 나라의 주체적 력량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혁명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느 나라의 혁명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하여 줄 수 없다.

때문에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어느 정도의 심도와 속도로써 진척되며 그것이 언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나라 혁명 정세의 성숙 정도와 그 나라 자체 력량에 결정적으로 의존되는 것이다.

오늘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실례가 이것을 잘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 투쟁에서 주체적 요인을 홀시하고 국제적 요인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이 보장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경제적 경쟁에서 제국주의가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가면 민족 해방 혁명은 저절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서 민족 해방 혁명을 《평화적 공존》에 복종해야 하며 결국은 혁명은 하지 말고 앉아 기다리라고 떠들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아세아 당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듯이 떠들어 댐으로서 그 나라 당들의 독자적이며 주체적인 활동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주체적 요인을 홀시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모든 시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을 거세하려는 책동인 것이다. 만약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부의 지지와 원조만을 기다린다면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이다.**

우리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충직한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나 조선 혁명의 주인도, 조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힘도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이며 자체의 힘으로 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또 해 낼 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 사상은 바로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열한 계급 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닥치는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용감히 타개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왔다.

공산주의자의 주체적 립장은 혁명 수행에서 로동 계급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가 통일되여 있다는 레닌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매개 나라에서 로동 계급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다른 나라 로동 계급의 투쟁과 세계 혁명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여로 되는 것이다.

례컨대 혁명을 승리한 나라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고 그의 경제적 지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로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민족주의 편향》이요 《폐쇄적인 경제》라고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로선이라고 까지 비난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제창하는 《통합 경제》에 끌어들여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는 계속 락후한 처지에 있게 함으로써 어느 한 두개 나라의 경제 발전의 리익에만 복종되게 하자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 매개 나라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을 옳게 수행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민족적 임무도 국제적 임무도 수행하지 못 하게 하는 반맑스주의적 행동으로 된다.

자기 나라 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려는 주체적 립장은 결코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협애한 《민족주의》적 립장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 혁명에 충실하려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립장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중요한 과업은 우선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바로 우리 당이 그렇게 애써서 건설해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있으므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력은 비상히 강화되였고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인 혁명적 민주 기지를 철옹성 같이 꾸려 놓았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과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철석같이 지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로동 계급의 민족적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제적 임무에도 충직할 수 있었다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공산주의자의 주체적 립장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민족적 다양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일반적 원칙은 세계 로동 계급과 광범한 피압박 피착취 근로 대중의 풍부한 투쟁 경험의 리론적 개괄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따라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일반적 원칙들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의 력사적 및 민족적 제 조건이 각이한 것 만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은 그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민족은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적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완전히 동일하게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각 민족은 민주주의의 이런 또는 저런 형식이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이런 또는 저런 변종이나 사회 생활의 각 방면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런 또는 저런 템포에 독특한 것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

들은 한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 당들에게 내려먹이려고 하고 있다. 지어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사정도 모르면서 그 당들의 대내외 정책들을 규정하여 주며 그 실천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제작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농업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농기계가 없이 어떻게 농촌 경리를 협동화 할 수 있겠는가》하는 등 시비를 하며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민족적 다양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란폭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제 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기 나라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기계적으로 대하거나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의 뒤꼬리를 따르며 남의 나라 경험들을 통채로 삼키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남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내리 먹이는 것이 대국 배타주의적 태도라면 자기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남을 모방하고 남의 지시에 따라 가는 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모두 맑스-레닌주의의 원칙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으며 혁명에 막대한 손실과 후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 당은 창건 이래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를 관철시켜 왔다.

바로 우리 당을 짧은 기간 내에 강력한 대중적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킨 당 건설의 조직 로선, 전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의 주체성,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 등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모범들이다.

이상과 같이 주체적 립장이란 일체의 활동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자체로 수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혁명에 이바지 하려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다.

청년들은 주체적 립장에 확고히 섬으로써만 진정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신을 당'적 사상 체계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심오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는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조선 혁명에 대한 확고한 주견과 립장을 가질 수 없다.

청년들은 또한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내용, 그의 창조성에 대하여 더욱 심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리하여 청년들은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능동적이고도 창발적으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 혁명 전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고서는 자기 힘에 대한 신심도 민족적 자부심도 나올 수 없으며 조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없다.

끝으로 청년들은 주체적 립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체적 립장과 대치되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청년들은 주체적 립장에 철저히 섬으로써 혁명 임무에 끝까지 충직한 당의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행복과 향락

박 충 배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문제를 이렇게 설정할 때 우리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본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였다는 긍지를 느낄 때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조국과 인민을 팔아 먹더라도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 가든지 제 하고 싶은 노릇만 다 하면 자기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감정이 이와 같이 각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계급적 처지가 각이하며 생활 목적에 대한 그리고 인간 생활의 가치에 대한 견해가 각이한 데 기인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을 한갖 먹고 마시는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 가든지 그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을 생활의 유일한 목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만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술이나 먹고 난봉이나 부리는 것이 생활의 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상에 마주 앉았을 때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회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 것을 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기의 힘과 정력과 재능을 바쳤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례는 우리가 혁명 전통을 학습할 때 혁명 선렬들의 형상에서 언제나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견해와 태도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참된 인간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귀착된다.

과연 인간 생활이란 한갖 먹고 마시는 것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인간 생활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의 하나는 인간이 바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자기의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는 데 있다. 《사람은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먹는다》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목적도 바로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사들, 근로하는 인민 대중들만이 참된 인간 생활을 리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데서 생활의 보람과 긍지, 기쁨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맑스에게 물었을 때 그는 투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목적의 유일성이라고 대답하였다.

맑스가 말한 유일한 목적과 투쟁은 곧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해방과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투쟁은 사회적 공동 생활 속에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자신을 의식적으로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 간주하며 사회와 집단 속에서만 자기 생활의 참된 의의를 발견한다. 여기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 정치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밥만 먹고 거저 사는 사람에게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사람은 반드시 정치 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일도 알고 사회의 일도 알고 그리하여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인민을 위해서 싸우고 낡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사회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사람은 그가 자기의 온갖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사회를 위하여 아낌 없이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자기 생활에 대한 긍지와 기쁨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착취 계급은 남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며 근로 대중의 피땀을 착취하는 데서 《행복》의 원천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의 대'가로 오직 배불리 먹고 부화 방탕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그들은 이러한 향락을 《행복》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창조적인 생활이 아니라 기생적인 생활이며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며 개인 리기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창조적이며 사회적인 진정한 인간 생활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다.

사회 발전을 반대하여 오직 기생적이고 탐욕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는 착취계급들은 사람들로부터 참된 행복에 대한 건전한 지향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반동적 리론들을 조작해 내고 있다.

그러한 반동적 리론들 가운데서 오늘 제국주의 나라들과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 가장 널리 류포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실존주의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 단순히 나서 죽는 것에 불과하며 인간 생활에는 아무런 목적도 있을 수 없고 오직 그 날 그 날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사는 보람이며 《행복》이라고 설교한다. 그 날 그 날의 향락이 생활의 유일한 보람이라면 사람에게서 남는 것은 오직 동물적 욕망 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밖에는 그 어떤 생활의 보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이 류포시키고 있는 다른 하나의 반동적 사상은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자들은 그 날 그 날의 《리익》을 생활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 리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며 심지어는 배신, 간계 등 가장 추악한 범죄까지도 서슴지 말고 감행할 것을 선언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유일한 보람은 추악한 개인적 리익 즉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는 오늘날 악명 높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기초로 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이란 딸라에 대한 야수적 욕망의 생활 양식이다. 딸라를 위해서는 살인, 강도, 사기와 협잡 등 온갖 범죄적인 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는 것, 나아가서는 그러한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또한 행복으로 간주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식 생활 양식이다.

이 모든 반동적 선전의 목적은 참된

인간 생활의 본질을 은폐하고 생활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견해를 류포시키며 사람들을 추악한 동물적 욕망의 노예로 전환시킴으로써 새 생활과 새 사회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행복에 대한 그들의 건전한 리해와 생활에 대한 참된 사랑의 감정을 박탈하자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날 그 날의 추악한 향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가리지 않는 가장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행복관은 그의 숭고한 투쟁 목적과 생활 리념으로 하여 부르죠아들이 설교하는 행복에 대한 견해와 날카롭게 대립된다.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가장 고귀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하여 변절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이 짧은 평생을 깨끗하게 살지 못 하고 조국과 인민 앞에 죄악을 짓고 자기의 평생을 더럽힌 자는 참으로 가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사소한 난관과 애로 앞에 굴복하고 혁명을 배반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저들의 개인주의적 본성을 로출시키면서 혁명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건전한 사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개인의 향락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근로 대중과 특히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에 대한 관심만 고취함으로써 극도의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시키며 그들을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하고 매 순간 자기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에는 《사회주의의 최고 목적이 곧 사람들의 개인 행복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개인 행복을 그 어떤 〈최고 목적〉에도 복종시키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부르죠아 사상의 기본인 개인 리기주의를 극구 찬양함으로써 개인의 리익을 집단과 인민의 리익과 대치시키고 있다. 결과 유고슬라비야 청년들 속에서는 혁명 투쟁을 회피하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살며 자신의 안일과 물질적 향락만을 추구하는 패덕 현상이 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의 우월성—그것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이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온갖 사회적 질곡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다 훌륭하고 보다 보람 있는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이다. 공산주의를 한갖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만 선전하는 것은 사실 상 자기 개인의 추악한 생명을 유지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서슴지 말 것을 설교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설교를 되풀이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선전에 무젖은 청년들은 혁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추악한 인간들로 타락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붉고 푸른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푸른 아드리 해 해변'가의 술'집》에는 날마다 이 항구에 오는 외국의 고관들과 선원들에게 몸을 팔기 위하여 20~25 세의 처녀들이 밤마다 출입하는 데 이것이야말로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회의 재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원쑤 제국주의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것,

다른 사람이야 억압을 받건 말건 제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 래일은 어떻게 되든지 그 날 그 날을 위하여 유쾌하게 지내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고귀한 사람의 일생을 추악한 동물의 생활 수준으로 저락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 추악한 생활을 위하여 도적질이나 강도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 조선 청년들은 혁명 선렬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근절되고 모든 것이 생활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 자신에게 차례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먹고 입는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다 바칠 수 있는 광활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여기에 사회주의 사회가 모든 건전한 사람들의 행복의 요람으로 되는 리유가 있다.

오늘 풍만한 토양에 백화 만발하고 주렁진 열매가 맺히듯 사회주의 제도의 품에 안겨 살며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처지는 무한히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인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오늘 투쟁의 시대,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일찌기 민청 제 3 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는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는 우리는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혁명 선렬들의 투쟁 업적과 고귀한 투쟁 정신을 이어 받은 우리가 인류의 최고 리상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위대한 혁명 사업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것보다 더 크고 보람 있는 생활을 또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가 령도하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에 사는 보람과 긍지를 안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에 몸 바쳐 싸워야 한다. 후대들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더 많은 일을 하며 자신을 언제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고 생활에서 근면하고 검박하여야 한다.

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다 훌륭하게 복무하려는 지향,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보다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창조적 재능을 증대시키려는 사람들의 지향은 바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지향이다.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며 문학과 예술을 배우는 이 모든 것은 그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사회를 위하여 보다 훌륭하게 복무하려는 지향, 자기의 생활과 투쟁을 보다 보람있게 하려는 지향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만약 이 모든 지향의 참된 뜻을 망각하고 단순히 《과학을 위한 과학》, 《예술을 위한 예술》, 《기술을 위한 기술》등등에만 사로 잡히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그 어떠한 행복도 차례질 것이 없으며 한갖 먹고 마시는 동물의 생활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가에게는 음악가의 행복이 있고 과학 기술자에게는 과학과 기술자로서의 행복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사회적 복무의 각이한 형식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행복이 인간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그가 예술을 하건 기술을 하건 체육을 하건 조국과 인민 그리고 혁명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거기에서 진정한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더 잘 일하자! 그러면 조국은 더욱 번영해질 것이고 인민의 행복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 (1)

김동백
송기용

우리 인민의 생활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할만한 미풍 량속이 많고 많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은 수천 년이란 긴 력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 량속을 우리 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사상, 도덕 수양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미풍 량속을 몇 개 측면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우리 인민은 나라를 무한히 사랑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조선 인민으로 태여난 높은 긍지를 가지였으며 항상 목숨으로 조국을 수호하였다. 수천 년의 유구한 우리 력사에는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 없이 바친 열렬한 애국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70이 넘은 백발 로인인 의병 대장 최 익현은 용감히 싸우다가 적에게 붙들여 일본에 압송되였다. 적들은 최 익현의 높은 신망을 고려하여 그를 리용할 목적으로 높은 벼슬과 많은 돈으로 그를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 익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왜적에게 주고 태연히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일어 서 북두성 빛나는 곳 조국을 바라 보며
백수로 잡힌 몸이 통분함을 못 이기노라
만 번 죽은들 적국의 부귀를 탐할소냐
오로지 일생에 내 나라 잊지 못 하노라.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집단과 조국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외적을 앞에 두고 개인 사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개인의 리익을 저울질 하지 않았다.

《삼국 사기》에는 공사 앞에서 사사를 돌보지 않은 김 유신 장군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씌여 있다. 적이 국경에 집결하여 장차 대군으로 신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에 이를 방어할 임무가 김 유신 장군에게 지워졌다. 김 유신은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수습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이 때에 그의 가족들은 모두 문 밖에 나서서 장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김 유신은 집 앞을 지나면서 돌아 보지도 않고 가다가 집으로부터 50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을 멈추고 집에 가서 숭늉을 떠 오라 하고 그를 마시면서 말

하기를 《우리 집 물은 아직 옛맛이로구나.》 하였다. 그제야 군사들이 모두 《대장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일가 친척과 떨어지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겠는가》 하였다고 한다.

그 누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련만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가족보다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하여 바치는 것을 더욱 떳떳한 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전쟁에서 물러 서거나 패전하고 살아 돌아 오는 것을 더 없는 수치로 여겼였다.

력사 기록에는 자기의 아들 원술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 왔을 때 김 유신 장군은 《나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가정의 교훈까지도 위반하였으니 목을 베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 씌여져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원술 비장에게만 중형을 줄 수 없다.》 고 하여 그의 죄를 관대히 용서하였으나 그 후 원술은 감히 아버지를 만나지 못 하였다.

장군이 서거한 후에 그는 어머니를 만나려 하였으나 어머니 역시 다음과 같은 말로 아들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였다. 《원술 같은 자식은 이미 돌아 간 아버지에게 자식 노릇을 못 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의 어미로 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데 있으랴. 그러나 적 앞에서 물러 서지 않는다는 엄격한 군사 규률을 위반하고 패주해 온 자식을 우리 부모들은 이처럼 엄격하게 대하였던 것이다. 원술은 그 후 당 나라 침략군을 격퇴하는 싸움에서 큰 공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였던 것이다.

우리 인민은 근면하다

우리 인민은 근면하고 슬기롭고 락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오랜 로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아름다운 품성이다.

우리 인민은 로동을 무한히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경, 어로, 수공업 등 그 어느 부문에서 일하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영예감을 가지였다. 농민들은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라고 하면서 근면하게 일하였다.

박 연암은 《예덕 선생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은 앉아서 남의 로력을 착취하는 량반, 선비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민이라고 하였다.

고려 시기 리 규보는 농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고랑에 엎드리여 비 맞으며 김매니
거칠고 검은 얼굴 어찌 사람이랴
왕손 공자들아 업수이 여기지 말라
부귀 호사가 우리 손에 매였나니

(《농민을 대신하여 읊노라》에서)

우리 선조들이 로동 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천재적인 발명과 기술 및 문화적 재부들은 인류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훌륭한 재능과 풍부한 창조력을 세계에 시위하였다.

세계에서 제일 오랜 금속 활자, 측우기, 철갑선과 신라의 첨성대, 석조 예술에서 극치를 이룬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정교한 솜씨와 우아한 것으로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고려 자기 등은 우리 인민의 예술적 재능을 잘 말하여 준다. 유구한 력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 예술은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나라 민족 예술은 그 종류와 형식에서 다양하고 모두 자기의 독특한 개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주제적 내용이 심오하고 인민적 성격과 락천적 열정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 농악, 탈춤, 배'노래 등은 직접 로동과 결부되여 발생된 인민적 예술이다.

농민들은 예로부터 개별적 작업보다도 집단적인 작업이 흥겹고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레, 품앗이, 소겨리 등을 조직하여 일하여 왔다. 두레는 악기를 갖추고 그 선두에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라는 기'발을 휘날리면서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옮겨 가면서 일하였고 그의 조직성으로 하여 분산된 농민들을 단합시켰다. 또한 그를 통하여 토호 량반들의 무제한한 착취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두레를 조직하지 못 하는 곳에서는 품앗이반을 조직하거나 소를 중심으로 소겨리반을 조직하였다. 두레, 품앗이반, 소겨리반 성원들은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성대한 잔치를 차리고 온 마을이 즐겁게 지내군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집단 로동의 우월성을 실제 생활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이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은 삼천리 강산을 기름진 농경지로 만들었으며 농작물을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하며 생산 도구들을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벼 농사를 발전시켜 왔으며 누에를 쳐서 비단을 생산하고 목화를 심어 무명을 짰다.

우리 조선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일찍부터 기후 조건을 연구하여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일찍부터 철로 만든 도구가 농경에 도입되여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였다. 경주 봉덕사의 종은 당시의 높은 주조술을 말하여 주고 있다.

서로 믿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침략자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나 평화로운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이 우리 인민의 특성이다.

서로 믿는 마음, 의리를 존중히 여기는 품성

조선 인민은 깨끗하고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남을 믿고 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인간 관계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악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은 《배신자》라 하여 엄격히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서로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음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 인민은 표면 상 진실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표리부동한 사람》, 《안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멸시하였다. 그리하여 말과 행동, 마음과 표정이 항상 일치해야 함을 원칙으로 여기며 또 그렇게 행동하였다.

조선 인민은 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의리를 대단히 존중히 여기였다. 동지 호상간의 의리, 웃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이였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품성

우리 인민은 또한 겸손하며 례절이 바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나이 많은 로인들에게는 무조건 양보하며 존경하고 어른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며 로인을 편안하게 해 드리

는 것 등이 오랜 사회적 도덕으로 되여 왔다.

만일 어른을 몰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뜻한 방 아래'목을 어른에게 양보하며 맛 있는 음식을 로인에게 먼저 대접하며 로인에게는 특별히 따뜻한 옷을 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또한 마을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웃집 로인들을 청하는 것이 례절로 되여 왔으며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경험 많은 로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를 존중히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로 되여 왔다. 그리고 로인에게는 경어를 쓰며 그들이 하는 어렵고 힘 든 일을 젊은이들이 대신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되고 있다.

정 철의 다음과 같은 시조는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여보소,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소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섧다는데 짐조차 지시올가.

년령이 거의 같은 사이라 해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솔직하고 은근한 태도를 취하며 경의를 표시하되 허례허식을 반대하였다.

예로부터 조선 인민은 정직하고 남을 속일 줄 모르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신라의 《인관과 서조》에 대한 이야기는 정직한 우리 인민의 도덕적 품성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옛날 신라에 인관과 서조 두 사람이 있었다. 어느 장날 인관은 피륙을 팔려고, 서조는 곡식을 팔려고 다 같이 장에 갔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장에서 만나 서로 피륙과 곡식을 사고 팔았다. 서조가 인관에게서 산 피륙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던 도중 갑자기 어데서인가 소리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서조가 가진 피륙을 채 갔다. 무슨 장난인지 소리개는 그것을 물어다가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관이 그 피륙을 살펴 보니 그것은 자기가 서조에게 판 것이 틀림 없었다. 그 다음 날 인관은 서조를 만나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피륙을 서조에게 주었다. 그러나 서조는 《소리개가 피륙을 채 간 것은 하늘의 뜻이니 내 어찌 그것을 받으리오》 하고 거절하였다. 인관은 《그렇다면 피륙은 내가 도로 가져 가겠으니 곡식은 그대가 가져 가라.》 하고 서조에게서 샀던 곡식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조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서로 사양하던 나머지 피륙과 곡식을 장마당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 갔다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벗의 도리가 네 가지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사귀는 것은 벗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가깝게 있은즉 바로 잡아 주고 멀리 있은즉 칭찬하여 주고 즐거울 때는 서로 생각하고 환난이 있을 때는 죽기를 같이 하는 것이다.》

(리 덕 무)

실 화

…송자의 눈은 차즘 멀어 가고 있다. 꽃나이 처녀의 몸으로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빛을 갈망하여 가슴을 쥐여 뜯는 송자의 애절한 신음 소리.

《송자에게 광명을 주오! 광명을 주오.》 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할머니의 음성…

그 신음 소리, 그 음성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송자의 두 눈에 광명을 주자

박 권

부산 대학 병원 입원실—110 호실의 한 침대 우에 송자라는 한 처녀가 누워 있다. 그는 줄곧 얼굴을 감싸 쥐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쑤셔 못 견디겠다고 신음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러나 입원실을 회진하는 의사나 그의 뒤를 따르는 간호원들은 그저 처녀의 사정이 사뭇 딱하다는듯 동정 어린 시선만 보낼 뿐이다.

송자는 신음 소리에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가끔 《할머니!》 하고 애타게 부르군 한다. 그러나 고향에 치료비를 구하러 간 할머니는 아직 돌아 오지 않았다…

송자는 경상 북도 청도땅 《납닥바위》 밑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과수원에 날품을 팔아 근근히 생활해 왔었다. 가난 속에서도 송자는 할머니를 극진히 공경하였고 할머니 또한 손녀를 무척 아끼여 서로 의지하고 살아 왔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송자는 골이 쑤셔 못 견디겠다고 드러눕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장의 끼니가 급한 처지에 약 한 첩을 써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중에도 송자는 칠순이 넘은 할머니가 홀로 과수원에 품을 팔러 나가군 하는 것을 보다 못하여 아픔을 이기고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할머니의 뒤를 따라 품팔이를 나가군 하였다.

병 든 몸으로 고역에 시달리니 병상은 악화되여 급기야 한 쪽 눈까지 찾아 들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였다.

손녀의 그 기막힌 정상을 보는 할머니의 심중은 말할 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

송자는 세상에 태여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고 기구한 운명의 나날을 허덕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송자를 낳고 본래부터 앓던 폐병에 산후병까지 겹쳐 젖 한 모금 못 먹이

고 세상을 떠났다.

다섯 살 나던 해 봄에는 아버지마저 고된 로동에 지쳐 신병이 들었다. 일본놈이 망했으니 잘 살게 되리라고만 생각했던 그의 아버지는 갈수록 험악해 가는 남조선 형편에서 끼니를 메꾸기조차 어려웠다.

그는 늙은 어머니에게 송자 하나를 남기고 저주로운 세상을 원망하며 목숨을 거두었다.

그 때부터 송자는 할머니의 치마'자락에 눈물 마를 날 없이 감기여 다니며 자랐고 철이 들기가 바쁘게 빼빼지도록 고역에 시달렸다.…

오직 송자만을 믿고 의지하여 가던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 불쌍한 것아, 스물 한 살 꽃다운 나이에 눈까지 멀어 가다니…》

할머니는 보다 못 해 이 집 저 집 찾아 다니며 돈을 꾸어 보려고 하였으나 빈 손으로 돌아 오군 했다.

(송자의 눈은 갈수록 멀어 간다. 어떻게 할 것인가…한 푼 쥔 것 없이 병원에도 갈 수 없다) 할머니는 생각다 못 해 과수원'집(지주)을 찾아 갔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악착스럽게 부려 먹던 지주놈은 돈을 꾸어 주기는커녕 들여 놓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증오와 울분이 북받쳐 이를 갈며 돌아 섰다. 사실 할머니는 그 놈의 과수원에서 동뼈가 휘였다.

작년 여름 허기진 배를 그러쥐고 나무에 올라 가 가까스로 일하던 송자가 떨어지던 일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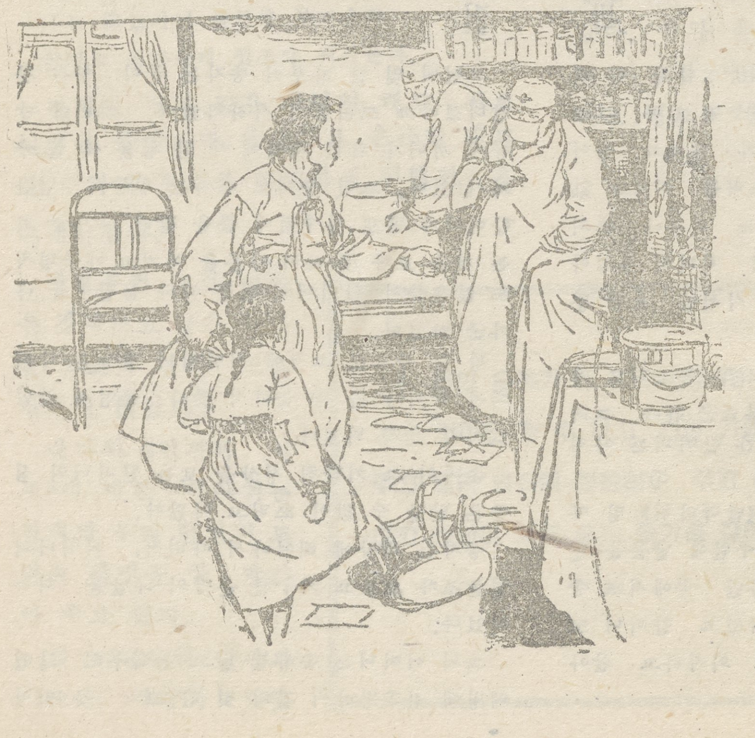
《이 놈! 개 돼지보다 못 한 놈, 어디 보자, 몇 날이나 재세를 하나…》

할머니는 또다시 이를 부드득 갈았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송자의 손목을 이끌고 《부산 대학 병원》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여보시우, 이 애 눈 좀 봐 주이소. 하나 밖에 없는 손주딸이 눈이 멀어 간다우.》 할머니는 계속 애원하였다.

병원의 내과의 안 모 교수는 그 정상이 너무도 딱하여 우선 입원을 시켜 주었다.



며칠이 지난 후 신경 외과의 한 의사는 서둘러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 쪽 눈마저 실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뇌하 수체에 생긴 종알(혹)을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완전한 소경이 될 뿐 아니라 소경이 된 후에도 한 평생을 고통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 약값, 입원비…해서 5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할머니는 단 하나 밖에 없는 재산—오막살이 집을 팔러 고향으로 떠났다…

《할머니…》 송자는 쑤시는 아픔에다 자기 앞길이 절망적이라는 생각까지 합쳐 침대 우에 모대기면서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하랴 싶긴 하였으나 그래도 집을 5만 원만 받았으면…하는 간절한 생각이였다.

그런데 낮이 지나자부터 송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였다. 의사들이 몰려 왔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저 처녀의 눈은 멀고 말겠구나!) 의사들은 다 같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이구 눈이야! 할머니…》 송자는 또다시 부르짖는다. 이 때에 그의 부르짖음에 대답이나 하듯이 입원실의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들어 왔다.

《송자야, 돈을 가져 왔다. 집을 팔았다!… 선생님들 적선하는 셈치고 이 애를 고쳐 주이소!》 보자기를 끌러서 돈을 내놓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장하게 울리였다.

할머니가 집을 팔아 온 돈은 3만 원, 5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란다.

의사들은 아무 말 없이 입원실을 나가고 있었다. 미제가 도사린 남조선 사회 제도 밑에서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인 보건 정책 밑에서 그들에게는 《2만 원》이 모자라는 환자를 치료해 줄 권한이 없었다.

《이 애에게 광명을 주오. 돈 2만 원이 없어서 이 것의 눈이 멀어야 옳단 말이요!》 할머니의 원한 서린 부르짖음은 방안에 울리고 그것은 창 밖으로 터져 나와 정녕 남녘 땅 온 천지에 메아리치는 것만 같다.

× ×

독자들이여! 우리 잠간 생각하여 보자! 남북의 삼천만 겨레는 한 조상의 피'줄을 이어 예로부터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아 왔다. 경사가 났을 때는 이웃 간에 기쁨을 같이 나눴고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쳐 화를 막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판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보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누구나 어떠한 병이라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아 고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성하던 사람의 눈도 돈이 없어 멀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 고통이 되여 집단 자살을 하는 참혹한 현상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광명을 잃은 송자, 또 그 얼마일지 모르는 다른 많은 송자에게 광명을 주는 길은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 내고 그 주구 박 정희 매국 도당을 타도하며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길 뿐이다.

남조선 앞뒤골목

《너무도 응당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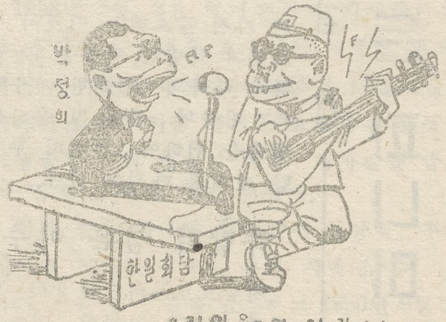
원래 박 정희란 자가 일본 천황의 《충실한 적자》로서 혈서 탄원하여 「황군」에 들어 갔고 「만주 군관 학교」, 「일본 륙군 사관 학교」 등을 거쳐 「황군의 중대장」까지 된 「모범 군인」이였으며 중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 전범자들의 길들은 강아지로서 조중 인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데 가담했으며 해방 후에는 미제의 정탐군으로 변쟁하여 미국 정보부의 개가 되여 사람잡이를 한 자임은 세상에 비밀이 아니다。

요즘에 와서 더욱 기승을 부리며 왜놈들에게 충성을 떨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정책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은 어찌되고 있는가! 어디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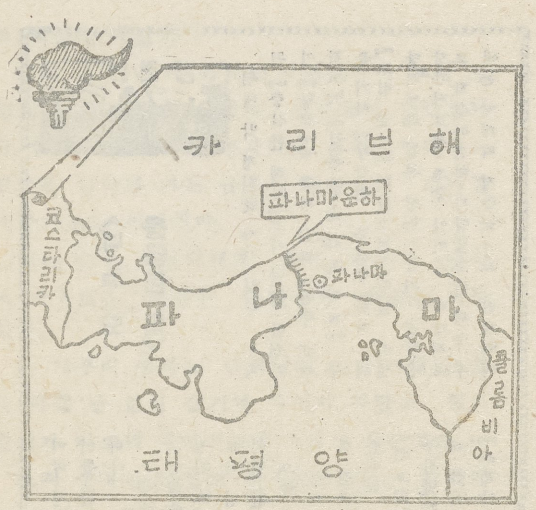
오늘 남조선 하늘에는 왜색 구름이 짙게 떠돌고 있으며 들기만 해도 진저리 나는 게다짝 소리가 요란하고 「호텔」과 거리 바닥에는 「하오리」, 「하까마」, 「기모노」가 부산한가 하면 지어는 일본말 강습소 간판까지 나붙고 있다。 노래도 「스끼야끼 노래」가 독판치는가 하면 서점마다에는 일본 쇼설들이 쌓이고 백화점과 상점에는 매대마다 일본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김포 공항에는 일제 침략자의 앞잡이들로 만원된 이른바 「한국행 뻐스」가 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재침의 길이 트이자 벌써 서울에만도 일본의 독점체들의 상사들이 五〇여 개소, 상사 대표, 무역 대표, 또 무슨 회사의 주재원, 어떤 공장의 특파원 따위들이 二천 여 명이나 들끓게까지 되였다。

왜놈들과 박 정희 도당들은 오늘의 조선은 六〇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날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리완용》의 《아리아》



투쟁의 불길 높이 든 파나마

김 희

파나마, 하면 흔히 사람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운하를 생각하며, 또한 파나마 운하라면 누구나 운하 지대에 뻗친 미제 야수들의 침략과 략탈의 마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실로 파나마 인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파나마 운하는 그 건설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침략과 략탈의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파나마 인민들의 분노는 지난 1월 9일 드디여 폭발되였다. 오늘 파나마 인민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운하 지대에서 물러 가지 않으려는 미제의 집요하고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및 운하의 귀속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략탈의 검은 마수

지금으로부터 약 100 년 전에 미국은 자기의 령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통로를 찾으려 분주히 돌아쳤다. 이리하여 미국은 여러 차례 탐사대와 측량대를 파나마와 니카라과에 파견하여 운하를 건설할 지점을 조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불란서는 1869년에 애급의 수에즈 운하 건설을 완성하고 1880년 1월부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 해양 간의 수위의 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수평식 운하를 계획한 기술적 결함과 열대 지방에서의 질병,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8년 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불란서는 운하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 하였다.

교활한 미국 침략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1889년에 니카라과를 강박하여 니카라과 운하 회사를 설립하고 즉시로 운하 건설을 시작했으나 그도 역시 몇 해 못 가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1903년 1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콜롬비아를 강압하여 1천만 딸라의 대'가와 년 사용료 25만 딸라씩을 지불하는 략탈적인 조건으로 헤이—에린 조약을 체결하고 운하 지대의 사용권을 얻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의회는 이 강도적인 조약의 비준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파나마 지대에서 콜롬비아를 반대하는 반란을 계획적으로 사촉하고 1903년 11월 3일 반란이 일어 나자 즉시로 전함을 파견하여 횡포한 간섭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이 지역은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되여 파나마 공화국이 생겼다. 미국은 곧 이를 승인하고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파나마 운하와 그 량쪽 각각 8 키로 메터의 령토를 《영구 조차지》로 탈취하였다.

피와 눈물의 운하

운하 개설권을 독점한 미국은 1904년부터 운하 건설을 시작하였다. 놈들은 공사에 동원된 로동자들에게 무제한한 노예 로동을 강요하였다. 그들은 안전 시설도 없는 위험한 공사장에 로동자들을 마구 내몰았으며 깊은 감탕물에 빠져 허우적이거나 기계에 치워 불구가 된 사람들은 가차 없이 생매장해 버리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놈들은 저들의 만행에 조금이라도 항거해 나서기만 하면 공사장에서 사정없이 내쫓았다.

로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폭염이 내려 쪼이는 열대 지방의 기후는 숨이 막히게 무더웠고 울창한 산림과 습지대에 욱실거리는 악어와 모기들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였다.

하여 수 많은 로동자들이 고역에 시달려 죽고 무서운 전염병과 로동 재해로 인하여 무더기로 쓰러졌다. 실로 파나마 운하는 이 나라 인민들과 공사에 동원된 로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으며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쳐 있다.

이리하여 1914년 8월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개통되였다. 그러나 파나마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이 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넘어 가고 파나마 인민들은 운하 지대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끝 없는 략탈

파나마 운하는 하루 약 36 척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1 시간에 1 척의 비률로 배가 오가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운하를 건설한 이 후 여기를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받아 내는 통행세만으로도 매년 1억 딸라의 리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중 파나마에 주는 몫은 1 년에 겨우 68만 딸라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도 미제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략탈하고 착취하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파나마 인민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착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민족적인 멸시와 천대를 강화하고 있다. 놈들은 운하 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파나마의 경제 명맥까지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독점 회사인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는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 이 나라의 주요 산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파나마 인민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 넣고 있다. 미제는 이 지역에 이른바 《운하 지대 정부》와 《운하 지대 회사》를 설치하고 지사급의 관리를 파견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 제패에 미쳐 날뛰는 미제 침략자들은 또한 파나마 지대를 저들의 라틴 아메리카 침략을 위한 군사적 요새로, 무제한한 리윤 추구의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 미제는 이 지역에 《미군 카리브 통합 사령부》를 설치하고 큐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발판으로 리용하고 있다.

분노의 화산은 터졌다

파나마 땅 우에 건설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인민의 피와 살과도 같은 것이다. 7만 5천 평방 키로 메터의 면적에 풍부한 자원을 가진 105만 명의 파나마 인민들은 이 운하 하나만 가지고서도 잘 살 수 있으나 그 것이 미제에게 빼앗긴 탓으로 하여 가혹한 략탈을 당하고 있으며 60여 년 동안이나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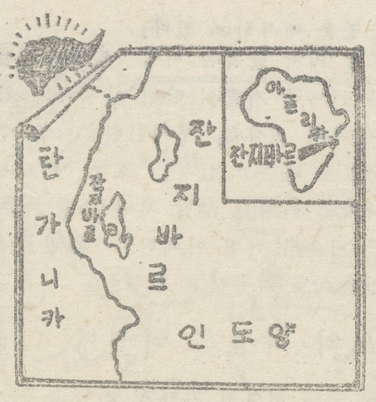
로동력을 가진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 5만 명은 일'자리가 없어 헤매고 있다. 요행 일'자리가 붙어 있는 로동자도 월 생활비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로임을 받고 있다.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아무리 일해도 자기가 먹을 것도 벌지 못 하고 있으며 의사는 겨우 400 명인데 그것도 도시에만 집중되여 있어 농촌에서는 병을 치료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되고 있다.

기나긴 세월 가난과 굶주림과 굴욕 속에서 살아 온 파나마 인민들은 자기 땅을 짓밟고 있는 미제에 대하여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있으며 굴욕적인 조약을 폐기하고 운하 지대의 귀속을 요구하여 오래 전부터 완강하게 투쟁하여 왔다.

1958년 5월, 3천 명의 파나마 학생들이 파나마 운하의 국유화를 요구하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였고 1959년 11월 3일에는 파나마에서의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로동자, 학생들의 시위 대렬이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여 미국 기'발을 찢어 버렸다.

이와 같은 파나마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부득이 운하 지대에서의 파나마의 명목상 주권을 인정하고 1960년 9월 21일에는 파나마 운하 지대의 끝에 미국 국기와



잔지바르는 어떤 나라인가?

류 충 히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혁명의 불'길이 휩쓸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잔지바르에서 일어난 정변도 이 거세찬 불'길의 한 점이다. 실로 잔지바르 인민 공화국의 선포는 그 나라 새 정부 외상 바부가 말한 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혁명의 일보 전진》으로 된다. 그러면 잔지바르는 어떤 나라인가?

동아프리카의 탄가니카 해안에서 동쪽으로 36 키로 메터 떨어진 곳에 잔지바르와 펨바라는 두 개의 섬이 나란이 있다. 이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잔지바르이다.

이 나라의 면적은 2천 657 평방 키로 메터이며 인구는 30만 7천 명이다.

10 세기 잔지바르 제국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에 이 나라 령토는 탄가니카, 모잠비크 등 동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이 나라 사람들은 애급과 아랍 반도의 나라들, 나아가서는 멀리 아세아의 나라들과도 상업 거래를 하였다.

잔지바르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정향과 야자이다.

정향나무의 재배 면적은 이 나라 총 경지 면적 6만 4천 600 헥타 가운데서 그의 절반인 3만 2천 헥타나 된다. 이 나라의 정향 생산량은 세계 정향 총 생산량의 80%에 달하며 이 나라 수출 총 액의 80%,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이르는 곳마다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매년 1만 2천~1만 5천 톤의 야자를 생산한다. 이 밖에 잔지바르에는 석유 자원이 많다.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는 기만적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 10월 29일에는 운하 지대 관리 중심지인 발보아 언덕에 있는 행정 기관 건물의 정면에 파나마 국기와 미국 국기를 게양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운하 지대에서 미국 국기가 게양되는 그 어느 곳이나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30 일 간이나 파나마 국기 게양을 거부하는 등 파나마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령토 완정을 위하여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을 학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파나마 인민들은 지난 1월 9일, 미제의 야만적인 탄압을 박차고 굴욕적인 조약의 폐기와 운하 지대의 귀속을 요구하여 단호한 투쟁에 일떠 섰다.

반미 투쟁에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은 미군의 류혈적 탄압을 박차고 미국 대사관, 미국 회사들을 비롯한 미제의 침략 및 략탈 기관들과 100여 대의 미군 및 미국인 소유의 자동차를 습격 소각하였다.

오늘 파나마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물리치면서 《양키는 물러 가라!》, 《우리는 반드시 운하 지역으로 들아 올 것이다》라는 결사적인 투지를 안고 전 인민적 반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파나마 인민의 이 거족적인 반미 봉기는 나라의 완전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 투쟁이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은 외롭지 않다. 전 세계 수억만 평화 애호 인민들은 파나마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다.

미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정의의 애국 투쟁에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슬기롭고 용감한 파나마 인민들과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잔지바르는 이렇게 자원이 많고 특히 인도양상의 교통의 요충이며 동부 아프리카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오래 전부터 서방 식민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쳤다.

1502년 포도아인에 의하여 잔지바르 제국이 무너졌으며 18 세기 초에는 오만 교주국에 합병되였다.

19 세기 말에 와서 영국, 독일, 이태리 등 식민주의자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다가 1890년에 영국이 강점하고 그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파쑈 테로 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이 나라 인민을 노예로 부려 먹고 그의 재부를 모조리 털어 갔다. 침략자들은 이 나라에서 민족 리간 정책을 실시하여 인민들을 서로 싸우게 하였으며 1961년에는 《종족 폭동 사건》을, 1962년에는 《우편국 방화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자기 군대를 끌어 들여 무고한 애국자들과 주민들을 수 많이 감옥에 넣고 학살하였다.

미제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이러한 죄행을 적극 감싸주면서 잔지바르를 아프리카 침략을 위한 자기의 군사 기지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로 이 나라는 식량이 극히 부족하며 인민 생활은 소와 말과 다름 없었다. 수천 명의 인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두 끼 밖에 먹지 못하며 지어 하루 한 끼로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민의 85%가 문맹자이다.

그러나 잔지바르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학정과 략탈에 순순히 굴종하지 않았으며 외래 침략자들이 기여 든 첫 날부터 그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잔지바르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한 투쟁은 제 2 차 대전 후 아프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고 여러 나라들이 련'이어 독립됨과 아울러 더욱 치렬해졌다.

1959년 초에 영국 식민지 당국이 민족 교육 발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조작하였을 때 잔지바르 인민은 일대 시위로써 이를 반대하여 싸웠으며 이 해에 이 나라에서 력사 상 처음으로 5.1절 시위가 있었다.

1960년 여름에는 잔지바르에 로케트 기지를 설치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10만의 주민이 궐기하여 싸웠으며 끝끝내 그 기도를 좌절시켰다. 1961년 2월에는 미 국무 차관보 윌리암스의 《방문》을 반대하는 강력한 반미 시위가 있었으며 같은 해 8월 30일에는 미국 령사관을 습격하고 방화하였다.

잔지바르 인민의 이와 같은 줄기찬 투쟁 앞에 식민주의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잔지바르는 1963년 12월 10일 드디여 독립을 쟁취하였다.

지난 1월 12일 잔지바르에서는 정변이 발생하여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며 영 련방 내에서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당과 잔지바르 및 펨바 인민당의 련립 정부가 전복되고 국가 수반인 추장은 쫓겨 났으며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고 아프리카 시라지당과 움마당(인민당)으로 구성된 혁명 정부가 수립되였다.

혁명 정부는 《인민의 물질적 복리를 개선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16일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미국 대리 대사와 외교관 및 미국 기자를 내쫓았으며 미국 《위성 추적소》를 점령하였으며 지난 1월 28일에는 불란서 외교관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1월 24일 잔지바르 인민 공화국 정부는 30 명으로 구성되는 잔지바르 인민 공화국 혁명 위원회가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 주권 기관이라고 선포하였다. 혁명 위원회 성원들 중에는 로조 대표, 청년 지도자, 혁명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그 중에는 부두 로동자, 운전수, 목공, 농민, 기술자들)도 들어 있다.

오늘 잔지바르 인민들은 혁명에서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새 생활 창조를 위하여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암해 책동을 물리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 번 잔지바르에서의 정변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을 박차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하여 온 잔지바르 인민의 또 하나의 승리이며 잔지바르 인민의 새 생활 창조에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잔지바르 공화국 선포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새 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잔지바르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굳은 련대성을 보내면서 보다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실 화



죽어가는 사병

본 대로, 들은 대로 쓴 이 한 편의 실화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밝히지 못 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썩은 세상은 이윽고 뒤집힐 것이며 어둠은 밝아 올 것이다.

강 일 구

작년 어느 날 괴뢰 륙군 제 505 병기단 예하 모 중대 식당에는 사병들이 점심 먹으러 모여 들고 있었다.

욕설과 몽둥이 세례로 지친 사병들을 기다리는 식탁에는 보리밥과 멀건 국물이 놓여 있을 뿐이다.

《홍! 또 나이론'국이야.》

《나이론'국이 아니면 도레미화당인 줄 몰라!》

《공급되는 걸 다 준대도 코끼리 비스켓트겠는데 두 발 가진 쥐가 훔쳐 내니 기가 막혀서!》

《쉬! 온다.》

뒤에서 누군가 상관이 온다는 신호를 하였다.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유별나게 련대장놈이 거들거리며 오고 있었다. 사병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의 파도가 계속 출렁이고 있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괴뢰군은 미군보다 25 분의 1이라는 작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보잘 것 없는 공급 물자 마저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 오면서 가마니가 말로 변하고 말이 밥통으로 변하는 것이다.

련대장은 취사 반장 진 용일 하사를 몇 대 보기 좋게 후려 갈기며 소리쳤다.

《뭣들 하고 있어! 빨리 식사를 끝내지 않고, 엉! 이제부터 오는 놈은 혼내라, 알았는가?》

《네!》

취사 반장은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오들오들 떨며 대답하였다.

저글픈 식사가 끝난 식당은 휑뎅하였다.

이 때 일등병 림 병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에 달려 왔다. 그는 식당 정면에 걸어 놓은 시계를 쳐다봤다. 12시 40분이였다. 배식 시간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숨을 내 쉬며 배식구에 다가 섰다.

《밥 한 그릇 주시유.》

《시간이 지났는데 밥은 무슨 밥이냐?》

취사 반장은 악에 치받쳐 앙칼지게 소리쳤다.

《배식 시간이 아직 20 분 남았능기요.》

《무슨 잔소린가 말이야.》

피'대를 올린 그는 스물 세 살 밖에 안 된 애어린 애숭이였으나 그래도 상관이랍시고 29 세나 되는 병기에게 재우눈을 곧추 세우며 달려 들어 뺨을 호되게 후려 갈겼다. 억울하게 얻어 맞은 병기는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 했능기요?》하고 반항해 나섰다.

《짜식! 반항을 해? 임마 상관 앞에서 무슨 본때냐? 엎드려 뻗쳐!》하고 취사 반장은 앙칼지게 소리쳤다. 《기합》을 넣자는 것이였다.

괴뢰군 내에서는 열핏하면 《싼타크로스》, 《쥐잡이》, 《신'바닥 핥기》, 《한강 철교》, 《비행기》, 《총 묻기》 등등 별의별 방법의 기합으로 족치고 있는데 사병들에게는 그것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다. 병기는 기합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전신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았다.

그러나 어찌하랴 괴뢰군 사병(士兵)은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철창 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 아닌 죄수—사병(死兵)인데야! 그는 취사 반장을 원한에 서린 눈으로 흘겨 보고 엎드리고 눈을 감았다.

취사 반장은 길이 1 메터, 직경 5 센치나 되는 아까시아 몽둥이로 병기의 허리를 힘껏 내리쳤다.

《아이유》

병기의 입에서는 신음 소리가 튀여 나왔다.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서 수백 번 기합을 당하고 또 기합을 넣는 법을 시시콜콜하게 배운 그는 방금 전에 련대장에게서 얻어 맞은 분풀이로 이를 악물고 계속 내리쳤다.

한참 후 그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늘어진 병기를 발로 차면서 뇌까렸다.

《짜식, 일어 섯.》

그러나 척추 하단부에 심한 농후상을 입은 병기는 꼼짝 못 하고 있었다.

그 날 밤부터 병기는 앓기 시작하였다. 상처는 퉁퉁 부어 오르고 몸에는 열이 올랐다.

이튿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분대장은 왜 일어 나지 않는가고 눈을 부라리였다.

《허리를 못 쓰겠습니다.》

병기가 가까스로 대답하자 그는 독수리가 병아리를 노리듯 노려 보며

《꾀'병했다간 혼날 줄 알라. 알았지, 오늘 병원에 가 봐!》

라고 내뱉듯 소리치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밤'재에 움푹 꺼져 들어 간 눈이며 핏기 잃은 파리한 병기의 낯색을 보고 틀림 없이 앓는다고 짐작한 모양이였다.

그 날 낮에 병기는 제 6 이동 외과에 갔다. 병원에는 도로 공사에 나갔다가 팔 다리를 다친 사병들이며 기합을 당하여 이가 부러진 사병들이 주른이 서 있었다.

인간의 리성을 잃은 군의관은 병기의 하소연을 듣기도 전에

《바보 같은 자식! 무엇 때문에 얻어 맞고 이 꼴이냐, 멍텅구리 같은 자식.》

하고 한바탕 욕설을 퍼부은 다음 상처를 처삼촌댁 벌초하듯 대충 훑어 보고 《아무 증세도 없다. 가라!》하고 내쫓았다.

이것은 병기에게 죽음의 선고처럼 무서운 것이였다.

아침에 분대장이 《꾀'병을 했다간 혼날 줄 알라, 알았지?》 하고 위협하던 말이 주문(呪文)처럼 울려 왔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야 하고 빼저린 학대를 받아야 하는가?)

그는 숨막힐듯한 답답한 가슴을 안고 허둥지둥 중대로 돌아 왔다.

《임마! 누굴 속이려 했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꾀'병쟁이야.》

분대장은 병기의 뺨을 주먹으로 답재였다. 병기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 일었다. 눈언저리를 얻어 맞은 그는 량 손으로 눈을 싸쥐고 푹 꺼꾸러졌다.

그러나 분대장은 입'가에 얄미운 경멸의 조소를 띄우며 뇌까렸다.

《이 등신아, 허재비 같군!》

…그 날부터 병기는 전혀 일어 날 수가 없었다. 쌓다 남은 성'돌처럼 병실 한 구석에서 뒹굴며 학대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고문단이 검열을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 쥐고 주인 행세를 하는 미 제 8 군 사령부는 괴뢰군의 일거 일동을 자기의 명령에 복종시키며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어느 부대이건 검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열은 괴뢰군 사령부로부터 대대, 중대에 이르기까지 문건, 훈련, 대렬 검열, 각종 교육 훈련, 진지, 도로 보수 공사 진행 정형, 사병들의 사상 동태, 각종 비상 사고의 내용과 통계 등 모든 면을 다 포괄한다. 이 검열에서 작성되는 강평서는 괴뢰군 장교들의 《승진》과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 고문단 검열이 있을 때에는 2 개월 전부터 우로는 군단장으로부터 아래로는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볶아친다.

중대장 류 재헌 대위란 자는 상전에게 꼬리를 흔드는 삽살개처럼 돌아치면서 사병들의 봉급을 잘라서 남포등, 장관지, 뼁끼, 서류

표지 등을 사 들이는가 하면 또 뇌물을 먹고 비공식적으로 보낸 휴가 인원, 외출 인원, 사역(私役) 동원 인원들을 보충하려고 린접 중대에 가서 사병들을 꿔 오느라고 야단치는가 하면 심지어 민가에 내려 가서 인민들을 끌어다가 눈가림을 하자고 날뛰였다.

이러한 때에 병실에 누워 있는 병기는 중대장의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넌 어디 아프냐?》

병기를 자기방에 끌어 온 중대장은 메주'덩이 같은 얼굴을 험상하게 찡그리며 왜가리 소리를 질렀다.

《기합을 맞은 허리가…》

하고 병기는 억울한 사정을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놈은 다짜고짜 뺨을 한 대 답새기며 소리쳤다.

《거짓말 말앗! 탄약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무슨 헛소리냐, 죽어 봐야 알겠는가!》

병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악마의 소굴에서 어떻게 자기 몸을 가늠하였으면 좋을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

《네놈의 꼴이 미국 고문관에게 들키면 내가 승급 못 한단 말이야, 어디 가서 숨어 있으란 말야, 알았어!》

《네.》

……재'빛 하늘에 납'덩이 같이 무거운 저기압이 내리 누르는 침침한 날 미국 고문관놈들은 중대에 검열하러 왔다.

중대는 개미굴을 헤쳐 놓은 것처럼 바글바글 끓었다.

《야! 변소에 가 숨으란 말이야.》

중대장이 병기에게 웨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제기랄—도깨비 감투국 같은 미국 고문관 검열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중얼댄 병기는 아픈 몸을 네 발로 질질 끌며 변소로 향했다.

변소에 들어 가 숨어 있으려니 서글픈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노. 차라리 죽어 버릴가…)

그러나 죽기는 너무나 아까운 20 대의 청춘이였다. 고향에선 부모 처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과 깨고소하게 살아 보고 싶은 불같은 욕망이 솟아 났다. 또 철천의 한을 품고 죽은들 가해자들은 불쌍하다는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에잇 살아야 한다. 죽어선 안 된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두 주먹을 불끈 틀어쥐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날마다 시간마다 병기의 상처는 더해 갔다. 곪기고 피고름이 나왔다.

그래도 뻰뻰스러운 군의관들은 《병명이 확실치 않은 중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 6 이동 외과에 가입실(假入室)시켜 놓고 아무런 치료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1 주일이 지나서 《이상이 없다, 좋처다.》라고 하며 퇴원시켰다.

중대장은 군의관들과 숙덕공론을 하고 10 일 간의 휴가 명령을 내렸다.

고향에 돌아 간 병기는 휴가 기일이 15 일이 지난 후에도 중대에 돌아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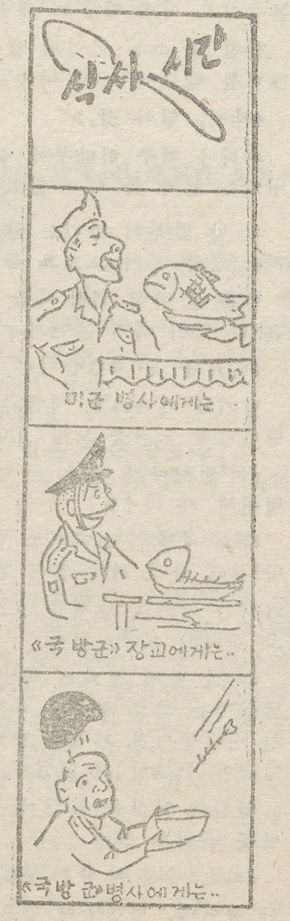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니면 도주인가?

그 내막에 대하여 중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가 왜 중대에는 돌아 가지 않았을가? 군률을 어기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뼈저린 체험으로 알고 있는 그가 왜 중대에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가?

대답지 않아도 독자들은 알리라.

감옥살이보다 더한 《국군》살이는 모르고 한 번이지 두 번 다시 하지 못 하겠다는 떳떳한 항거의 버티기 투쟁인 것을! (잡지 《시대》에서)



음악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문 종 상

극장의 무대에서나 라지오에서 들려 오는 훌륭한 노래들과 음악들은 우리들에게서 각양한 사상 정서적 반응을 불러 일으키군 한다. 합창곡 《오, 눈보라 눈보라》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머리 속에는 저절로 승냥이마저 얼어 죽는 만주 원시림의 설한풍을 뚫고 행진하는 우리 혁명 선렬들의 형상에 대한 표상이 떠오르며 어느 새 항일 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지가 우리들의 사상 감정을 사로 잡고 우리들을 힘찬 투쟁에로 고무한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무비의 영웅성을 표현하고 있는 《결전의 길》은 미제와 그의 주구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감을 불러 일으키며 그들을 당장 때려부시고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고 싶은 강한 정서적 충동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훌륭한 노래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일정한 사상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되며 그리하여 노래와 음악들은 우리들을 흥분, 감동시키기도 하며 또한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 가기도 하면서 사회와 생활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배양한다. 그것은 모든 사실주의적인 문학 예술 작품들이 그러하듯 노래와 음악도 항상 생동한 사회 생활과 인간의 풍부한 정신 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음악에서는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이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과는 달리 음의 수단을 통하여 표현된다. 즉 문학 작품에서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성격, 생활의 이모 저모가 형상되며 미술 작품들에서는 그것이 모양과 색채를 통하여 묘사되지만 음악에서는 생활이 음의 수단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형상은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과 같이 그러한 구체적인 생활적 사실과 비교해 볼 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음악을 특히는 기악을 아주 추상적인 예술로 단정해 버리고 음악 예술에서는 실제적인 생활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 못된 생각들이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개 음악 작품들은 그것이 사실주의적 작품일 때 매우 구체적인 사상 정서적 내용을 가진다.

음악은 인간의 영웅적 투쟁 정신과 강한 전투적 충동, 기쁨과 슬픔 등을 비롯한 각이한 정서적 상태를 전달함에 있어서 매우 위력하다. 원쑤 격멸에로 강하게 호소하는 《결전의 길》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의 기쁨을 노래한 《일터의 휴식》을 상기하여 보라. 《결전의 길》을 부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힘이 부쩍부쩍 솟아나며 영웅적 투쟁에로 우리를 충동한다.

《일터의 휴식》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로동당 시대에 사는 기쁨과 긍지감을 느끼게 하여 주는가!

이와 같이 음악의 중요한 특

성은 우선 인간의 감정에 대한 강한 호소성을 가지며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악이 지향하는 감정과 기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심오한 정신적 체험을 불러 일으키는데 있다.

그러면 음악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음악에서 사상 정서적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은 선률이다. 물론 음악에는 사상적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률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음악 작품들에서의 사상 정서적 내용의 본질은 음악 언어 특히 선률 언어를 통하여 전달됨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우선 선률이 울려 주는 표현 성격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좋은 노래와 음악들에서 선률은 말과 같이 표현적이다. 때로는 노래의 선률이 가사 보다도 더 뚜렷하고 깊게 노래의 뜻을 밝혀 준다. 우리는 때로 가사가 없이 다만 노래의 곡조를 코'노래로 부르거나 혹은 랄라라로 부르면서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선률이 노래와 음악의 뜻을 표현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음악에서 선률이 아름답고 표현적이며 감동적이라는 것은 곧 노래와 음악에서 표현된 사상과 감정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률은 비단 노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복잡한 음악 작품들에서 작품의 사상적 내용을 표현하는 정수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향곡과 같이 가사의 도움이 없이 순전한 음악적 수단으로만 구성되고 있는 음악 작품들을 감상할 때 청중들은 우선 그 작품의 주되는 선률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률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실 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비상히 복잡한 것이니 만큼 음악의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음악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곧 선률이 그 만큼 다채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매개 음악 작품들을 통털어 놓고 볼 때 선률은 천태만상이며 그러면서도 모두 자기의 개성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간에는 일정한 공통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성은 현실 생활에 대한 정서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선률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갈라 볼 수 있다. 즉 기쁜 성격을 띈 것인가, 혹은 슬픈 성격을 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노의 성격을 띈 것인가 혹은 즐거운 성격을 띈 것인가이다.

물론 선률의 성격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또 매개 성격들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지로 음악 작품들에서 선률들은 슬프면서도 격노한 성격을 띈 것도 있고 즐거우면서도 희열에 가득 차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선률에는 언제나 주도적인 성격이 있는 법이다.

음악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은 선률 울림의 성격과 함께 그것이 행진곡 풍으로 씌인 것인가 혹은 무곡 풍으로 씌인 것인가 아니면 서정 가요 풍으로 씌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음악에서는 쟌르적 규정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음악과 생활이 어떻게 관계되여 있는가를 리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선률의 성격, 쟌르의 규정성을 판단하며 그 기초 우에서 그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에 더욱 깊이 침투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심화시켜 나가면 그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과 개성적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

성악 작품을 감상할 때 청중들은 가사의 도움을 받아 그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보다 쉽게 리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악 작품들 례컨대 피아노곡이나 교향곡을 감상할 때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들 한다.

기악 작품들은 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견 추상성을 띄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향시곡 《조국을 위하여》를

례로 들어 보자. 이 작품의 제목은 조국을 위한 인민의 투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이 작품의 첫 대목에서 낮은 음구에서 울리는 음산한 선률의 울림과 그 다음에 계속되는 신음하는듯한 서글픈 선률의 울림은 가혹한 착취와 압박 하에서 신음하는 인민의 형상을 련상시킨다. 더우기 신음하는듯 서글픈 선률의 울림은 파도치는 소리와 같은 반주로 안받침되고 있다. 그리하여 점차로 감상자들의 머리 속에서는 미제 강점 하의 남반부의 참혹한 현실 세계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첫 주제 —선률은 극적이며 강한 투지력을 가진 행진곡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것은 조국을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의 장면을 련상시킨다. 두번째 주제—선률은 서정적이면서도 강의한 성격을 띄고 있다. 이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남조선 인민의 념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즉 공화국 북반부의 생활에 대한 동경심과 조국의 통일에 대한 념원일 것이다. 그 다음에 큰 규모의 투쟁 장면이 첫 주제 선률에 기초하여 벌어지며 작품은 자유와 행복을 념원하는 주제—선률이 우렁차게 울리면서 종결을 짓는다.

이렇게 기악 작품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작품의 제목, 선률 울림의 성격, 쟌르적 규정성을 비롯하여 음악의 표현 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세밀하게 연구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나가면 반드시 그 작품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청년생활 소사전

기러기들이 왜 줄을 지어 나는가?

봄이나 가을이면 우리들은 기러기들이 줄을 지어 나는 것을 보게 된다.

무엇 때문일가? 새들은 공중을 날 때 상승 기류를 리용한다. 먼 거리를 날아 가야 하는 기러기들은 자기의 힘을 아끼기 위해 사소한 상승 기류라도 적극 리용하는 것이다.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 선 기러기가 날개를 칠 때 날개 끝에는 약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된다. 뒤를 따르는 기러기는 이 기류를 리용하기 위하여 앞의 기러기의 날개 쭉지 뒤를 따라 날게 된다. 그러므로 기러기가 날 때에는 사람인'자(人)나 한일'자(一) 형으로 나는 것이다.

바다의 자원

바다의 자원—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물'고기나 해초류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바다 속에는 그에 못지 않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 그리고 해저에 깔려 있는 각종 유용 광물들이다.

세계의 대양에는 지구 상의 전체 륙지를 153 메터의 두께로 깔 수 있는 량의 소금이 있다.

또한 태평양의 해저에만도 호주의 면적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 걸친 대 철광석 매장지가 있는데 그 매장량은 900억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3천 년 간 사람들이 륙지에서 발견한 총 철광석 매장량과 비등하다.

대기층의 우주 먼지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대기층 속에는 2,860만 톤의 우주 먼지가 떠 돌고 있다. 이 우주 먼지는 운석의 미세한 립자들로써 점차 지구 상에 떨어져 내린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매년 지구 상에 떨어지는 우주 먼지의 량은 약 1,430만 톤에 달하는데 그 중에는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섞이여 있다.



벽소설

아침 노을이 비낄때

정 혐순

저녁 녘 금자는 젖소의 젖을 짜고 있었다.

이 때 마을에 내려 갔던 정자가 그의 곁에 와서 말했다.

《얘 아까 너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군대에 간 오빠가 출장 가던 중 잠간 집에 들리겠다구 전화가 왔대…》

《아이 오빠가…? 야—참 그럼 빨리 일을 끝내고 가 봐야겠구나!》

금자의 얼굴은 금시로 환해졌다. 물이는 힘을 합쳐서 소젖을 짰다. 커다란 단지 같은 젖통에서는 젖이 수도'물처럼 콱콱 쏟아졌다. 그릇 안에서는 뽀얀 젖이 서리여 올랐다.

그런데 이 때 돼지 사양공인 계화가 막 달려 왔다. 그는 울'상이 되여 말했다.

《얘들아! 돼지 두 마리가 갑자기 탈이 나서 누웠어.》

《뭐 돼지가? 두 마리씩이나…?》

금자와 정자는 일시에 놀랜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 사태가 아닌가! 세 처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쩔바를 몰랐다.

그들 셋은 지난 해 초중을 함께 나온 민청원들이다. 셋은 축산반에 배치된 날부터 서로 도우며 다정하게 일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친하게 된 것은 민청 제 5 차 대회를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을 데 대한 민청 총회가 있은 후부터였다. 회의에서 세 처녀는 서로 경쟁을 묻고 상반년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할 것을 결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친근한 경쟁자인 계화의 돼지가 탈이 난 것이다. 더우기 수의사 동무도 도에 강습 받으러 가고 없지 않는가.

금자는 일순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이런 때 계화를 도와 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동지로서, 경쟁자로서의 도리이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오늘 저녁 4 년만에 만날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빠는 집에 들렸다가 내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가… 그렇지만 이 일은 오빠를 만나는 것보다 한 없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이야) 그는 동무들에게 말했다.

《내가 군 방역소에 갔다 오겠다.》

《그건 안 돼. 내가 갔다 와야 해.》

《내가 갔다 올래!》

서로들 자기가 가겠다고 우겼다. 그러나 금자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얘들아, 그러지들 말아. 계화는 탈 난 돼지를 돌봐야 할게구 정자는 다리에 종처까지 나지 않았니? 소 여물도 끓여 줘야 할게구…》

《그러니 왕복 80 리나 되는 길을 어떻게 혼자 갔다 온다구 그러니?》

《괜찮대두…》

그리고는 금자는 두 주먹을 꾹 틀어 쥐고 군 방역소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얼마를 못 가서 그는 숨이 턱에 닿는 듯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달리는 걸음도 오히려 느린 것만 같았다.

어느덧 밤이 되였다. 고개'마루를 넘는 오솔'길 량 옆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우중충 들어 찼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등골에 소름이 오싹 끼치군 하였다. 그는 가끔 돌에 걸채여 넘어지기도 하였다. 정녕 숨이 찰 때에는 잠간 나무 그루에 기대여 섰다가는 다시 달리군 하였다.

금자가 읍에 다달은 것은 밤 열시가 지나서였다. 가축 방역소에 다달은 금자는 급히 문을 두드리였다. 군 방역소장은 황급히 뛰여 든 금자를 보고 말했다.

《어떻게 왔소?》

《저—남천리에서 왔습니다. 돼지들이 탈이 났어요.》

《허허…남천리에서…그러니 혼자서 40 리'길을 달려 왔단 말이지, 어서 여기 와 앉소.》

《소장 동지, 전 앉아 있을 새가 없습니다. 돼지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렇지만 인제야 어떻게 떠나겠소? 래일 아침 함께 갑시다.》

《괜찮습니다. 저는 민청원입니다. 그리구…》

《어서 말하오.》

금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웨치듯 말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됩니다.》

《으음 알겠소. 알겠소.》

방역소장은 금자의 말에 몹시 감동되였음인지 두 눈을 씀벅이면서 해당한 구급약을 지어 주었다. 그는 다른 수의사들이 모두 출장 중이기에 혼자 남은 자기가 금자와 함께 떠나지 못 함을 매우 서운해 하였다.

《하여간 이 약만 먹이면 백발백중할게요.》 약을 받아 쥔 금자는 다시 총총히 거리를 빠졌다. 불현듯 오빠가 이젠 집에 들렸다가 떠났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는 얼마나 섭섭해 했으랴? 그렇지만 후에 편지로 자세히 써 보내면 나의 심정을 리해해 주실게야!)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야 금자는 축사에 되돌아 왔다. 계화와 정자는 그를 얼싸안고 어쩔바를 몰랐다. 금자는 숨가삐 물었다.

《그래 돼지는 어떻게 됐니?》

《괜찮어. 그런데 아까 너의 오빠가 축사에 왔더라. 네가 군에 가게 된 자초지종 래력을 말씀 드렸더니 〈금자도 이젠 어른이 다 되였구나!〉 하면서 몹시 기뻐하셨어.》

《그래!》

금자의 얼굴은 금시 기쁨으로 달'덩이처럼 환해지였다. 방금 왕복 80 리 고개'길을 달려 갔다 돌아 온 금자이건만 그는 다시 동무들과 함께 돼지의 병 치료에 달라붙었다.

어느 새엔가 날이 밝고 동녘 하늘에 아침 노을이 붉게 비꼈다. 자기의 정다운 벗, 경쟁자를 도와 80 리'길을 달리고 위급한 돼지까지 구원한 금자의 가슴은 행복한 생각에 파도처럼 설레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도우면 민청 5 차 대회 전으로 상반년 계획을 120%가 아니라 150%라도 능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금자의 맑은 두 눈은 별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필자—황해 북도 신평군 남천리 축산반 민청원)



(시)



영원한 지원자

김 영 일

산'기슭에 간편하니 천막을 치고
오늘은 여기서 배낭을 풀었노라
한 옆에 트렁크를 밀어 놓으니
자리 잡힌 살림'집 부럽지 않다.

우리 모여 온 것은 다를지라도
벌써들 구면 친구 다름 없구나
통성이 없어도 이 것만은 알 수 있다
너나없이 우리 모두 지원자인 것…

가장 충엄한 초소를 골라
맨먼저 서기 습관된 젊음이기에
해주, 하성의 세찬 경쟁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자리에 모였구나

우리는 꿈 많은 청춘 시절을
시대의 첨단에 꽃피울 줄 아는 사람
하길래 마음은 벌써 전기 철도 따라
노래처럼 경쾌한 기적 소리를 듣는다.

아직은 이십대의 많지 않은 나이,
그리 먼 길을 걸어 오지 못 했다.
이제 우리 걸어 갈 길이 더 멀거니
로동당 시대 앞에 부끄럼 없이 걸으리라!

자, 허리'바를 졸라 매자,
전투와 위훈으로 심장을 불태우자.
당이 위임한 천 리 전기 동맥을
우리들 청춘의 심장으로 뻗어 가게 하자!

청춘 궤도—공산주의 궤도 우에
후더운 땀일랑 한껏 뿌려 보자
이제 또 당의 부름 받아 안으면
처녀지와 고원으로 떠나야 할 몸들이니…

(필자—신의주 방직 기계 제작소 민청원)

⌒⌒ ☆ ⌒⌒

청년 생활 제 3 호 (루계 174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쇄 1964년 3월 16일 발행 1964년 3월 21일

ㄱ—430095 값 45 전

책 소개

일제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4×6판 93페지

이 책에는 일제의 만행과 죄행을 체계성 있게 력사적으로 폭로하면서 일제의 조선 강점전과 후를 두 개 장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일제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운 조선 인민의 투쟁은 력사적 흐름을 따라 감명 깊게 씌여져 있다.

특히 대륙 침략 전쟁과 태평양 전쟁시기 일제의 조선 인민에 대한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생동한 자료를 안받침하여 폭로 함으로써 계급 교양을 위한 서적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4×6판 48페지

이 책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우리당의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네 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 기풍으로 되는 근거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내용,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필요성,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정당성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가 서술 되여 있다.

사회 발전에서 사상 의식은 어떤 역할을 노는가

국판 4×6판 50페지

이 책에는 사회적 사상 의식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 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사회주의하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최 서해 선집 1 권

국판296 페지

이 책에는 최 서해의 작품 가운데서 우수한 작품들을 선발하여 년대순으로 수록 되여 있다.

매 단편들에서 작가는 일제하에서 조선 인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예리한 계급적 모순속에서 보여 주면서 열화 같은 분노와 항의를 품은 주인공들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출판사 발행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653 호)



《이른 봄》 리 중길 작